
第8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交通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6年4月25日(木) 午前10時

場所 交通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堂山鐵橋安全性與否에 關한件
 2. 地下鐵公社所管主要業務報告
 3. 交通放送本部所管主要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堂山鐵橋安全性與否에關한件 ... 2面
 2. 地下鐵公社所管主要業務報告 ... 47面
 3. 交通放送本部所管主要業務報告 ... 48面
-

(10時 44分 開議)

○委員長 黃炳五; 座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4次 交通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어제 심의했던 合井驛 閉鎖措置 再檢討 請願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小委員會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小委員은 여러 委員님들과 협의한 결과 小委員長에 李允中 委員님, 委員에 金喜甲·李智文·洪性龍·金永姬 委員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다 하므로 報告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 堂山鐵橋安全性與否에關한件

(10時 45分)

○委員長 黃炳五; 議事日程 第1項 堂山鐵橋 安全性 與否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市的 懸案問題인 堂山鐵橋 安全性 與否에 관한 件을 재상정하는 것은 어제 公社側이 설명한 현장확인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質疑와 答辯을 하였으나 政策決定 과정과 그 이후 재시공에 따른 600餘 億원의 豫算 및 撤去에 따른 交通대란 등이 문제인 만큼 오늘 다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여러 委員님들의 결정에 따라 재상정하고, 진지하게 한 번 더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性龍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性龍 委員; 洪性龍 委員입니다.

어제는 내가 質疑過程을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略하고, 質疑보다도 地下鐵公社에서 進行的한 과정을 한번 듣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 철거하게 된 동기는 물론 말씀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하자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과정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날 進行的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하자가 오늘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고, 또 내일은 어느 정도라든지 이렇게 쪽 날짜별로 처음에 하자가 생긴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지요? 있습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92年度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모르고, 근간에 저희들이 와서 補修 시작하고부터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2年度 것은 아마 資料가 일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洪性龍 委員; 그런 과정을 자세히 훑어본다면 어느 정도 그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 일지가 있습니까?

○工事2處長 辛正夫; 92年度 10月 7日 발견 돼 가지고.....

○洪性龍 委員; 그것이 어느 정도 하자가 생겨서 진행되어 왔는지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資料를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되는 데까지 해가지고.....

○洪性龍 委員; 그것을 조사해서 委員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어제 충분히 여러 委員님들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누가 철거해라 마라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예요. 우리 委員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충분히 地下鐵公社側에서 판단을 잘 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그 철거한다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社長님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資

료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委員長 黃炳五; 아주 우리 洪性龍 委員님 좋은 質疑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우리 여러 委員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質疑와 答辯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어제 그 質疑했던 내용에는 최대한 반복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質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朴謙洙 委員님.

○朴謙洙 委員; 資料를 檢討를 하고 해야 하는데, 朴謙洙 委員입니다.

어제 社長님께서 참으로 심도 있게 答辯을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오늘 온 資料는 조금 이따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 어제 答辯 중에서 社長님 答辯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市民의 代表機關에 答辯하실 때는 최소한도 조금 答辯하실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政運營 3個年 計劃이라고 趙淳 市長이 발표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은폐가 아닌 공개하는 市政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섯번째를 보면 優先順位를 가려내서 낭비 없는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市長의 강력한 方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참고로 유념을 하시고, 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社長님께서 처음에 발언하실 때 政策決定 過程이 산타페社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산타페社의 점검 結果報告書에 나온 것처럼 산타페

社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대단히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영향이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부터 산타페社 報告書를 참고로 했다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經濟性도 따져서 했다고 그랬는데 經濟性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결과보고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을 撤去를 했을 경우 어떻고, 撤去를 안 했을 경우 어떻고, 보장을 했을 경우에 어떻고의 市長室에서 회의를 가질 때 報告하는 結果報告書에는 최소한도 그런 내용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經濟性을 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社長이 즉흥적으로 答辯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어제 交通局長이 참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資料에는 交通局長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公社에서 제출한 자료가 交通局長이 참여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여 안한 交通局長을 어제는 社長께서 참여 안 할 리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委員들 質問 자체가 우습다, 당연히 참여하는 그 사항을 물어보고 있는 그 자체가 우습다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政策決定 過程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강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어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12月 4日 그 會議에서 地下鐵公社側에서 가져간 報告書대로 會議의 結論이 나지 않으면, 이를테면 거기서는 補修 補強으로 났는데 철거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社長은 마땅히 市長의 방침을 받

아서 회의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나오니 우리 公社側에서는 다시 한 번 再考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公社側은 마땅히 이 案件을 가지고 와서 公社 會議에 부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決定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부쳤는지, 안 부쳤는지가 公社 會議錄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會議錄이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決定을 했다면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상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12月 4日 이후에 公社에서 會議한 會議錄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月 4日 決定을 해서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제가 알기로는 12月 7日인가 8日인가 이쯤 했을 것입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12月 5日.

○朴謙洙 委員; 5日? 그러면 12月 4日 결정을 하고, 12月 5日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회견에 필요한 資料가 있을 것입니다.

그 資料와 기자회견문을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堂山鐵橋를 철거하기로 決定했다고 하면 決定했다는 決裁書類가 있을 것입니다 市長이 堂山鐵橋를 決定하는데 구두로 다 堂山鐵橋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바로 社長이 그것을 받아서 堂山鐵橋 철거한다 하고 기자회견을 안 했을 것이라 이것 이죠. 최소한도 社長이 올리고 市長이 決裁한, 堂山鐵橋는 이렇게 해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결재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市長의 決裁書類 寫本을 提出해 주십시오.

어제 社長 答辯 중에서 모순된 것이 社長 答辯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 나왔습니다. 第81回 臨時會 會議錄을 보면
李允中 委員이 質問한 대목에 있어서 答辯을 했는데 그 答辯
을 제가 간단한 부분 결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조학회나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用役이 나오면 그것을
전부 다시 한 번 專門家들한테 감정을 거쳐서 과연 原因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
런 事項을 專門家로부터 전부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하도록 이렇게 할 計劃으로 있다 하고 社長님께서 答辯을 했
습니다. 이것이 社長께서 저희 委員會에 공식적으로 答辯한
속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專門家로부터 들어서 結果를 보고
처방을 하는 것이 마땅한 社長の 정상적인 판단이고 수순이
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政策決定 過程에 저희가 자꾸 問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는 社長の 기본 기존의 노선 자체도 이미
변경되어 버린, 그것도 순간에 변경한, 이를테면 즉흥적인 政
策決定을 했다 라고 단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12月 4일에 決定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豫算書도 있고 몽땅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報告書인지 豫算
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600億원 工事を 하는데 있어서
관련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昨年 12月 4일이
기 때문에. 그래서 堂山鐵橋 철거에 관한 豫算確保 現況을
팩스로 바로 지금 提出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부분에서 質問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堂山鐵橋 現場檢證을 했을 때 가로보도 몇 군데 있었
습니다만 세로보 균열이 주균열인데 세로보 균열로 병명이
나온, 이를테면 세로보 균열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는, 이를테면 열차가 堂山驛 入口에서 열차가 다 지나고 나서 한 20초 뒤에 쟁, 팡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난다, 저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가 뭘가는 지금 地下鐵公社의 立場에서도 모릅니다. 청진기를 대고 들어봐도 어디에서 난 줄도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고 난 곳도 모릅니다. 그런데 산타페 報告書에 그러한 쟁소리, 팡소리가 나는 그런 報告書 內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타페가 6個月 동안 精密診斷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당산역 부근에 있어서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結果報告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資料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地下鐵公社에서 政策決定過程도 그렇고 너무 성급하게 했다, 再安全施工을 할 用意는 없는가 하니까 社長께서 答辯이 檢討를 한번 해 보고 할지 안 할지를 結果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크랙 가는 部分보다도 오히려 그런 部分이 더 위험한 部分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綜合的인 지금까지 狀況을 判斷 해 봤을 때는 마땅히 第3의 機關에 서울시 자체에서 다시 이런 論議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安全診斷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本委員이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地下鐵公社 자체나 산타페社에서도 지금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그런 것을 發見을 하고도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市民의 安全을 위한 地下鐵公社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할 최선의 方法을 다 취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社長의 答辯은 처음부터 問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結論에 이르러서 結果까지도 계속 일관된 선철거 決定事項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部分에 있어서 社長이 지금 제가 문의드린 것은 答辯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資料는 資料대로 주시되, 資料도 바로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部分은 資料가 새로 作成할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寫本만 提出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資料를 바로 提出해 주십시오.

精密診斷 安全診斷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本委員의 結論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炳五; 地下鐵公社 社長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答辯드리겠습니다.

어제 거의 하루를 저희들 堂山鐵橋 問題에 우리 委員님들 현장도 가 보시고 또 심도있는 質疑도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答辯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事項은 그런 答辯하는 여러 가지 事項에서도 아직도 선명하게 우리 委員님들께 說明을 충분히 못한 그런 事項으로 오늘 다시 이 問題를 質疑를 하면서 저희들 答辯드리게 된 이런 事項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타페 報告書를 그와 決定에 관련을 했다 하는 것하고 제가 答辯은 參考로 했지 그것이 결정적인 要因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왜 결정적인 要因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朴謙洙 委員; 제 答辯은 說明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분위기는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깐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參考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그것을 완전히 근거로 했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參考로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산타페 報告書하고 강구조학회 報告書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으니깐 그것도 參考로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參考로 한 事項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事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經濟性 問題를 따졌는데 지금 經濟性 問題라고 한다면 일부 저쪽 學會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야기가 교통손실에 대한 간접적인 費用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지금은 거의 중단됨으로 해서 市民들의 불편을 가지고 오는 交通 전체에 미치는 간접적인 費用까지는 안했고, 우리가 經濟性이라는 것은 다리 새로 놔서 630意원 드는 것하고 앞으로 補修하면서 또 再補修, 再補修했을 때에 그런 事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새로 놓는 쪽이 더 經濟的으로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외형적인 事項이 고려되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 우리 市民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는 檢討가 안 되었다는 事項을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참여 問題는 지금 速記錄에 봐서 알지만 副市長室에 會議를 하고 市長室에 간 것입니다. 副市長室 會議에는 參席이 되었고 市長室 會議는 다른 會議 때문에 參席이 안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副市長室 會議에 參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市長室에 參席했다는 이야기는 速

記錄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副市長室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市長室에 갔을 것 아닙니까? 市長室에 갈 때 다른 會議 때문에 交通局長이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왜 檢討가 되었으면 사전에 다시 들어가서 철거에 대한 會議를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런 會議나 그런 심층적인 檢討없이 그 다음 날 바로 철거를 決定했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事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로보 보수를 하겠다고 政策을 대충 우리 쪽에는 決定을 가져갔을 때 이미 다른 事項들도 다 檢討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하는 方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보 가는 方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方法을 선택을 이미 상당히 신중하게 檢討가 되어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市廳會議에서 철거로 決定되면 그 철거를 타당성에 대한 것도 다 檢討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다시 철거쪽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세로보 고치려고 決定했던 政策을 철거로 바꾸면서 철거에 대한 檢討가 다시 시작되는 事項이 아니고 그 전에 철거에 관한 事項과 세로보 가는 事項들이 심층성 있게 다 檢討되어 있기 때문에 그 分野는 方向만 바꾸면 되는 事項이지 다시 檢討해야 될 그런 事項이 아니다 하는 事項을 우리 政策決定 過程의 事項을 다시 한 번 報告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決裁書類 寫本이나 이런 事項들은 바로 提示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允中 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 중에서 여러 專門家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은 專門家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판단한 것입니다.

산타페도 專門機關이니까 거기 이야기도 듣고 강구조학회의 이야기도 다 듣고서 우리 政策으로 결정된 事項이지 그런 事項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고 그런 資料 참고도 안하고 우리 地下鐵 자체에서 제가 決定한 事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專門家들의 意見을 저희들이 다 듣고 決定한 事項이지 저 혼자서 저도 專門家도 아닌데 우리 職員들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타페나 강구조학회 報告書 이런 事項들이 다 專門家の 意見 아납니까? 산타페 報告書도 중간에 우리가 입수해서 들었고 강구조학회도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우리가 다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적으로 가서 제가 우리 방에 불러놓고 산타페 오너라, 그 다음에 강구조학회 오너라 해서 이야기를 듣는 方法도 있지만 이런 報告書에 의해서 우리 職員들이 수시로 專門家들하고 이야기해서 나오는 結論을 저에게 報告해라 하는 事項도 專門家들의 意見을 듣는 事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다 意見을 들어서 우리가 結論을 내린 事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事項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關聯豫算資料하고 또 산타페에서 했을 때 세로 보에 소리나는, 차 지나가고 난 후에 소리나는 問題, 이 事項은 우리 技術處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고 結論 分野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도 이 점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어떤 면에는 저희 執行部の 일을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金亨吉 委員 말씀 중에

이런 事項들 할 때 市議會 議員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決定을 내렸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그 점 대단히 우리가 반성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지만 설령 節次過程에서 조금 잘못 어떤 決定된 事項이 있다 하더라도 政策決定의 內容이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우리 市政을 이끌어 나가는데 市民을 위하는 그런 行政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으면 저희들 行政府에서 執行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힘을 도와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그런 事項입니다.

지금은 이미 정책발단이 되어서 12월에 저희들이 해서 일부는 발주가 되어서 工事が 進行 중에 있고, 또 設計用役 같은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그런 事項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할 대목은 안 됩니다만 어떤 면에는 施工會社側에서는 자기들 책임 때문에 상당히 關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어떤 다른 통로로 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與件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執行部에서 고군분투하는 事項을 그 우군적인 역할을 그 支援的인 役割을 우리 議員님이나 議會에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政策이 결정되어서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어서 우리 朴謙洙 委員 말씀하시는 第3의 機關에 다시 의뢰해서 安全診斷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은 현재 段階로서는 저희들이 이미 事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 추진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사항이 그러면서도 政策決定에 대한 변동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변동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이런 사항들을 우리 專門家나 우리 市의 監督機關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모아보겠다 하는 그런 정서적인 뜻이지, 바로 그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일 좀 잘 도와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謙洙 委員;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결국 최종결정은 市長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堂山鐵橋 철거했을 경우?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최종책임은 地下鐵公社 社長이 지는 것입니다.

○朴謙洙 委員; 아니, 市行政에 관해서.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서류를 보시면 압니다만 方針書 결정의 최종결재자가 社長입니다.

그 方針을 결정할 때까지 같이 政策討論을 하고 政策決定을 정하는 과정에 우리 會議를 하는 사항은 市長이.....

○朴謙洙 委員; 그러면 市長 決裁 없이 社長이 직접 責任을 지는 것입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事後 報告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報告합니다

○朴謙洙 委員; 社長이 堂山鐵橋를 철거하자, 마자로 결정하느냐 이것이에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朴謙洙 委員; 말고요, 最終責任은?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最終責任은 社長이 지는 것이지요.

○朴謙洙 委員; 社長이 지는데 그러면 市長決裁 없이 堂山鐵橋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決裁가 나는 것이예요? 이야기가 되는 것이예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社長決裁로 이 事業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追後에 市長에게 報告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報告를 해서 報告만 드리는 사항이지, 정책 결정은 社長이 하는 것입니다.

○朴謙洙 委員; 登山鐵橋 撤去 決定에 市長은 별 관련이 없습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러니까 政策決定할 때만 하는 것이지, 書類上 行政責任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社長이 責任지는 것입니다.

○金成春 委員; 그러니까 政策決定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報告를 드리고 市長한테는 어떤 決裁를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社長이 직접적인 責任을 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政策決定할 때까지 그러니까 社長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協의를 하는데 협의해서 그러면 전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방향은 안 되겠다, 社長이 생각하는 방향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까 우리는 세로보를 갈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을 가졌는데 거기서 技術者들하고 副市長하고 전부 다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중단해서는 市民들에게 불편 주고 또 하고 난 후에도 安全하지 못하다, 그러면 社長이 생각하는 세로보 교체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것은 政策

바꾸어서 전부 철거하는 쪽으로 가자 다시 檢討해 보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流討한 撤去方針을 굳혀서 社長이 決裁를 한 것입니다.

○金成春 委員; 社長이 決裁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만 市長이 내용적으로는 그런 政策을 결정해 주겠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朴謙洙 委員; 그 말씀 확실하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확실합니다.

○朴謙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을 할게요.

만약에 지금 公社 社長 答辯이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와 公社間은 무언가 問題가 있어도 있습니다. 서울시地下鐵公社 設置條例에 보면 市長은 公社의 業務를 감독합니다. 監督權者예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감독하지요.

○朴謙洙 委員; 이것이 지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論議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말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堂山鐵橋를 철거하는데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읍서버의 자격, 지금 社長님 말씀으로는 내가 책임지는데 市長은 나하고 相議할 뿐이다, 이런 정도고.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그것이 감독 아십니까? 市長에게 監督權이 없으면 市長과 相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다 해서 해 버리면 되지만 市長이 監督權이 있으니까 事前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실제 執行은 제가 하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감독이에요. 거기에 보면 決裁를 받아야 된다, 市長이 그것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監督한다

는 이야기입니다.

○朴謙洙 委員; 잠깐만요, 여기 堂山鐵橋 撤去問題는 서울시全體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렇게 答辯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條例 監督의 부분에 있어서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市長의 承認을 얻어야 된다고 22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市長의 監督權限과 아울러서 承認權限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承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口頭承認입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아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난 후에 事後에 報告를 하는 것입니다. 報告해서 이것이 cancel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報告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承認이 되는 것입니다.

○金永春 委員; 決裁라인을 통해서 市長에게 갔을 것 아닙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아니에요, 그 서류 보시면 알지만 決裁라인으로 안 올라가고 내가 최종 결정을 했다니까요. 書類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資料 보십시오. 委員님들께 드린 資料 몇 페이지예요?

○委員長 黃炳五; 朴謙洙 委員님, 조금 더 關係 規定을 더 확인하시고요.

○金成春 委員; 그러니까 承認이란 얘기는 社長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하기 전에 政策審議를 해서 결정을 짓고 事後에 報告를 하는 것이 承認이다 그런 얘기에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報告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承認이 되는 것

입니다.

○委員長 黃炳五; 다음에 補充質疑 또 해 주시고, 質疑하실
위원님? 李允中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中 委員; 지금 李始英 委員이 어저께 堂山鐵橋 再施工
設計用役に 대해서 質問했습니다.

25億 2,000萬원에 대한 施工을 했는데 設計 決定하는 과정
에서 業體別 評價書를 보니까 약간 談話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설계공단 외에 6個 業
體 代表들의 人的事項을 제출해 주시고, 어제 제가 質問했던
堂山鐵橋 最初設計書와 竣工때 된 設計書의 變動事項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資料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李允中 委員님, 資料로 提出해도 되겠지요,
두번째 質問?

○李允中 委員; 네,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變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社長이 모르
시면 어느 정도 設計變更이 되어서 이런 事故가 났는지 그
것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委員長 黃炳五; 그러니까 두번째 質問이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李允中 委員; 그렇지요, 어려우니까 實務責任者가 그것을
答辯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委員長 黃炳五; 지금 答辯이 가능하시겠어요?

○工事2處長 辛正夫; 제가 아는 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지만 80年代 초반에 서울시에서 發注가 되
었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위에 것이 좀 남아 있는 것

이 發注設計圖書이고, 밑에 있는 것이 竣工圖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것이 여러 번 設計變更過程을 거쳐서 이것은 저희들이 橋梁에 대한 引受만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어제 要請하신 設計圖書는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다음 李始英 위원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始英 委員; 李始英 委員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왜 하필이면 유신설계공단이 選定이 되었는지 그 과정과 내용과 또 事業遂行能力評價書도 이렇게 받았습시다만, 이 問題 하나 하나가 의심이 많이 가기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社長님께서서는 유신설계공단이 94年度에 開花山 역사에 問題를 일으켜서 서울特別市 地下鐵建設本部에서 建交部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요청한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高等法院 제3특수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은 1995年 1月 11日부터 95年 2月 10日까지 1個月間의 入札參加資格制限處分을 받은 會社입니다. 특별히 이會社가 不實施工에 의해서 한 그러한 會社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開花山驛舍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지하 하중부 적용을 잘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이런 會社를 저 막중한 堂山鐵橋 用役을 맡긴다는데 서울市民을 대표하는 議員으로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행여나 이 과정에서 엄청난 談話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委員들 要求資料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業體別 課業遂行 計劃書評價集計가 나와 있습니다.

라변이 유신이고, 바가 동일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그

評價教授 및 擔當公務員들 評價書를 보게 되면 유독 서울시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氏, 이분은 평가점수를 80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前 堂山鐵橋를 建設할 때 83年度에 堂山鐵橋 建設當時 擔當官 過程을 보게 되면 監督하는 監督官이 지금 현재 서울特別市 地下鐵建設本部 次長으로 있는 朴桂秉 次長이 외람되게도 당산철교 用役會社를 결정하는 審査委員입니다. 이분이 審査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필이면 6個 業體中에서 서로 쌍벽을 이루는 유신과 동일에 유신에는 72점을 주고, 동일에는 56점을 주었어요. 결정적으로 동일이 탈락하는 원인이 이 關係公務員에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하필이면 高名하고 有名하신 大學教授님들이 이렇게 評價를 한 것 같으면 저는 수궁을 합니다.

하지만 關係資料에 보게 되면 서울시 關係公務員인 朴桂秉氏하고, 또 서울시 技術審査擔當官인 李仁根氏 이 두 양반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社長님께서서는 특별히 어제도 유신설계가 前者에 不實施工에 이어 營業停止處分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실도 몰랐고, 또 地下鐵建設本部에서는 자기들이 원해서 開花山驛 舍 不實施工에 의한 제재를 요구하려고 建交部에 요구해서 이렇게 판결까지 난 것을 地下鐵建設本部에 質疑하니까 하자가 없다고 報告했어요. 이것은 地下鐵建設本部가 짜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公社가 무엇을 짜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本委員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이 朴桂秉 次長하고 李仁根 서울시 技術審査擔當官 이분이 문제가 있기에 社長께서는 다시 業體를 再考해 볼 用意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炳五; 地下鐵公社 社長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審査委員들이 몇 점 주느냐 하는 사항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의 사항이지 제가 몇 점을 주라 마라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資料에도 있습니다만, 각 關聯機關에 다 보냅니다. 이런 會社의 入札이 들어왔는데 이 會社에 法律的으로 制裁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制裁해야 될 대상이라고 회시가 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會社가 나중에 行政審判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회한 각 機關에서 온 서류의 사본도 자료에 붙여 놓았습니다만,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일이 그런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公文으로 조회한 결과 조회 회시에서 異議가 없다고 하면 그 資料를 그 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제도 李始英 委員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후에라도 다시 한 번 정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하자가 있는 분야가 나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시 檢討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장이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答辯은 못 드리고, 어제도 答辯 드렸습시다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書類하고 그것을 檢討를 하겠습니다.

檢討를 해 가지고 만분지 일이라도 制裁해야 할 하자분야가 나오면 당연히 法上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제가 社長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檢討를 執行部나 기타 관계기관에 依賴해서 그 회신된 것에 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市民을 대표하는 議員으로서 느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유신설계공단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會社는 開花山 驛舍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設計하는 과정에서 지하 하중을 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다시 1·2層을 헐고 再施工한 會社입니다.

그러면 1層이나 2層이 不實施工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設計를 잘못 해 가지고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再施工을 했고, 또 이 하중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는 建交部에 制裁를 요청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렇게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會社입니다. 이런 會社가 유독 6個 會社가 경쟁을 해 가지고, 특별나게, 資料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社長님께서 소신 있게 다시 檢證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많은 委員들이나 서울 市民이나 모두가 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어제도 答辯드렸습시다만, 엄정하게 한 번 그런 사항들을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金亨吉 委員; 補充質疑인데요. 계약문제는 調達廳에 계약 의뢰를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저희들 地下鐵公社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金亨吉 委員; 調達廳에 契約依賴를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額이 큰데.

○工事2處長 辛正夫; 昨年 12月 5日 建設技術管理法이 改正돼서 앞으로는 건설용역에 대해서 국제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우수 용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一位로부터 業體 現況評價를 하고.....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用役은 調達쪽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建設만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조변자재는 조달청으로 가고?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委員長 黃炳五; 됐습니다.

李允中 委員 補充質疑해 주세요.

○李允中 委員; 李允中 委員입니다.

李始英 委員의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李始英 委員이 지적했듯이 저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기술자문 평가 명단을 보면 서울대 장승필 교수, 변근주 연세대 교수, 조재병 경기대 교수, 철도전문대 이종득 교수, 명지대의 박영석 교수, 또 국민대 배두병 교수, 이렇게 6명과 서울시의 李仁根 技術擔當관하고 朴桂秉 地下鐵建設本部 次長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選定은 社長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0名 쪽 오지 않습니까? 오는 것 중에서 우리 實務者하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면 되겠다 해서 동그라미 쳐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議會니까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예를 들어 점수 매기는 것이나 채점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이 이렇게 공개

적으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심사하는 사람이 항의가 있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서 우리가 공개해도 괜찮은 것인가 물어보니까 공개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다 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처음에 걱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밀리에 점수 매기는 것인데 A교수는 얼마 주고, B교수는 얼마 주었다는 사항이 공개적으로 나가면 나중에 회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입장이 난처할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래도 공개해도 괜찮다는 實務者 이야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社長이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李始英 委員; 그래서 本委員 생각은 어떻게 해서 地下鐵建設本部 金學載 本部長이 있는데 朴桂秉 次長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李仁根 技術擔當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적사항 좀 아까 얘기했는데 아직도착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즉석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技術者들이고 기술계 學者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 處長이 알 것 같은데.....

○委員長 黃炳五; 委員님들, 그리고 答辯하시는 社長님, 좀 간단하게 答辯도 해 주시고, 質疑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工事2處長 辛正夫;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仁根 課長은 지금 현재 技術審査擔當會로서 英國에 가서 쪽 토목기술에 대한 공부를 한 6年間 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현재 擔當業務는 서울시 각종 工事に 대한 用役設計 審査를 주관하는 課長입니다.

그리고 朴桂秉 次長은 옛날 市の 道路課에서 橋梁을 많이 담당했고, 2호선 監督도 하면서 擔當係長도 했지만, 물론 그때 당시 堂山鐵橋에 대한 設計係長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실력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그 후에 꼭 地下鐵을 담당해 가지고 設計監理室長도 하고 그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次長으로 진급이 돼서 서울시에서 누구보다도 橋梁이나 地下鐵 관계에 대해서 가장 專門家로 생각이 되고, 鐵道技術士고 그렇기 때문에 本部長을 하지 않고 次長을 한 이유는 제가 本部員한테 상의를 하니까 本部長은 地下鐵 건설관계로 바쁘기 때문에 대신 次長을 하라고 해 가지고 次長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李始英 委員; 地下鐵建設本部에서 朴桂秉 次長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工事2處長 辛正夫; 꼭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地下鐵建設本部에서도 한 사람 審査委員으로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本部長은 토의하는 과정에서 바쁘고 또 設計監理室長은 휴가를 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次長을 그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地下鐵이나 교량에 대해서 朴桂秉 次長 이상 아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李始英 委員; 그래서 討議해서 辛處長이 결정한 것입니까?

○工事2處長 辛正夫; 會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단을 社長님한테 제출하니까 社長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지요.

○李始英 委員; 處長님, 봅시다.

堂山鐵橋의 不實施工이 원인이 되고 그 감독을 소홀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이 朴桂秉 次長이 그 사람 아십니까? 이 資料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필이면, 그렇게 李允中 委員이 수차에 걸쳐서 堂山鐵橋 건설 당시 監督官 명단을 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외람되게도 審議委員으로 특히 設計用役會社 審議委員으로 朴桂秉씨, 이 양반은 지난 83年度에 堂山鐵橋를 건설하면서 이 사람이 監督官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審議委員으로 들어가서 評價書 보세요. 서울시 關係公務員, 이 양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1등, 2등이 선정됐어요.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간다는 얘가지요.

○工事2處長 辛正夫; 제가 說明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80年度 초반만 하더라도 鋼 교량에 대한 用役會社나 우리 서울시 公務員들이 그만한 鐵道橋梁에 대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朴桂秉 次長이 여러 地下鐵建設本部 設計監理室長이나 아까 말씀드린 次長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道路나 橋梁이나 또 地下鐵 관계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을 했고, 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기술사랄지 施工技術士도 취득했고, 그래서 장담하건대 서울시에서 누구보다도 地下鐵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李始英 委員님, 아까 朴桂秉 次長의 경우 어느 시각에서 보면 지금 委員님들 말씀하시는

시각도 인정을 하면서 그간에 상당히 기술연마를 많이 해서 우리 市에서 인정하는 技術士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심 없이 정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始英 委員; 社長님, 결정하는 과정에서 李仁根씨나 朴桂秉씨가 그 고명하신 大學教授님, 大韓民國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으로 선정했는데 그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朴桂秉씨와 李仁根씨 두 양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유신설계공단을 또 決定했다는 과정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제가 다시 한번 쪽 짚어보고, 만약 법률적으로 챙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炳五; 다음은 金永春 委員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春 委員; 金永春 委員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하고, 오늘 또 연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할 수 없는 심정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솔직히.

資料要求를 어제 했던 것의 기본취지는 堂山鐵橋 撤去方針을 적어도 결정을 할 당시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資料要求를 했어요, 바로 지금 그것이 쟁점이 되어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철거방침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납득이 안 가니까 결국은 졸속결정을 했다 하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資料를 죽 받아놓고 보니까 전혀 원래 요구했던 方向하고 맞지 않는 內容들만 그냥 와 있어요. 會議錄

寫本은 없다고 하니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計劃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確認을 하도록 하지만 撤去方針을 決定하기 위해서 적어도 政策會議이라고 합니까? 명단이 提出이 되었는데 12月 4日 會議했던 것 공식명칭이 뭐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것은 政策會議가 아닙니다. 政策會議는 副市長이 주관해서 하는 會議고.....

○金永春 委員; 그러면 이것은 무슨 會議입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市長님 주관하는 會議니까.....

○金永春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불시에 아무 때나 필요한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요 적어도 중요한 어떤 決定을 해야 된다고.....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필요시에 하는 會議입니다.

○金永春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會議 名稱이 있을 것이라고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會議 名稱이 별도로 없습니다.

○金永春 委員; 그렇습니까? 그때 그때 필요하면 有關機關長이라든가 불러서 하는 그런 會議입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그렇습니다.

○金永春 委員; 어떻게 지금 提出된 資料의 한 部分을 보면 이렇게 決定하게 된 배경,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느냐 하면 社會的, 經濟的, 技術的 綜合檢討를 해서 그야말로 市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철거방침을 決定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要求했던 어저께 결정품신공문서 사본을 요구하고 그랬던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社會的, 經濟的, 技術的 綜合檢討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라고 할까요? 충분히 檢討했던 資料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예를 들면 撤去하고 再施工할 때에 따르는 가치와 그냥 세로보를 교체하고 보수를 하는 경우의 가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적어도 수치를 가지고 檢討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타페라든가 강구조학회라든가 이런 쪽의 意見들이 나온 것들은 수명이 얼마다, 뭐를 補修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고, 그렇다면 撤去를 한다면 撤去한 데 따른 그렇게 해서 再施工하는 데까지 費用이 600億원이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분명히 12月 4日에 決定하기 이전까지의 12月 생산된 堂山鐵橋 補修工事 및 點檢結果報告書까지만 해도 분명히 세로보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세로보교체를 통해서 補修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명을 연장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따르는 利益, 損害, 問題點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檢討된 報告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資料提示는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文書에 나타난 內容은 그저 社會的, 經濟的, 技術的 綜合檢討, 綜合檢討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어도 公務員 公職 事務를 보는 분들은 말로써 決定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市長이나 方針決定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會議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 단계까지는 분명히 文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市議員들이 지금 問題 提起하는 것은 철거해서 안 된다 하는 것에 꼭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金亨吉 우리 同僚委員께서 指摘했던 부분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 方針을 決定하기 전에 市議會에 議論을 하고 報告를 하고서 그렇게 했더라면 觀望했을 것이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報告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질책을 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권한은 執行部の 권한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市民을 代表하는 機關의 우리 代表하는 市議員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執行部로서는 그것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습니다.

○金永春 委員;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전에 이런 懇談會가 있거나 또는 業務報告가 있는 자리에 그런 기본적인 事項들을 적어도 檢討한 수치가 나온 그런 檢討業 告書 같은 것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길게 會議을 할 필요도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資料가 있으면 그것을 오늘 오후에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짚었던 것들 중에 몇 가지 확인이 더 필요한 것들을 순서도 없고 차례도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金永姬 委員께서 어저께 아마 質問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강구조학회측하고 산타페社와 12月 7日 아마 만나기로 미팅약속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돌연 만나기 이전인 12月 4日에 그냥 全面 撤去하고 施工하는 쪽으로 決定方針이 나와 버렸다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 용한선 교수가 問題提起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問題提起한 쪽에 대한 答辯이 확실하게 나와야 왜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SI技法에 대한 問題提起인데 SI技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調査를 해 본 결과 80군데가 問題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실제로 가서 육안으로 點檢을 해 보니까 실제로는 8個뿐이더라, 그 8個 중에서도 보다 더 정밀하게 點檢을 해 보니까 실제 問題가 되는 곳은 두 곳뿐이더라, 이렇게 해서 SI技法이 결국은 檢證도 안 되고 問題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說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분명히 지금 公社側과 그 다음에 異議를 제기하는 강구조학회라든가 朴局長이라든가 이쪽간에는 중대한 問題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결국은 方針決定過程에 대한 의혹을 提起하고 그런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뭐냐, 구조적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한 問題提起입니다. 그 점에 대한 해답만 딱 나와버리면 사실은 決定過程이야 이렇든 저렇든 그냥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그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이, 적어도 問題提起가 분명히 강구조학회라든가 朴局長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는 問題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主要部材중에서 세로보에 균열이 가고 일부 보강하고 교체하면 되는 정도이지 전체 구조적인 問題가 있어서 聖水大橋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그럴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점에 있어서 강구조학회쪽은 부분적인 問題로 보고 地下鐵公社측은 분명히 報告書 여기 저기 나타난 것을 보면 구조적인 問題 때문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중대한 問題에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撤去方針을 決定하기 전에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論議와 討論, 意見收斂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철거하는 쪽이 역시 나은 決定이었다 하고 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사실은 완전히 생략해 버리고 원래 12月初에 생산된 文書에도 보면 분명히 세로보로 교체하고 또 그러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강구조학회측하고도 또 專門家들하고도 議論을 해서 96年 1월부터 3월까지 最終方針을 결정하겠다는 이렇게 된 것이 갑자기 12月 4일에 決定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說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朴謙洙委員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으로서는 강구조학회쪽 얘기나 公社側 얘기나 나름대로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어느 쪽이 옳은지를 아직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非專門家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순수한 市民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더 進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部分들은 사실은 우리가 議論을 하겠지만 行政事務調查權 발동까지도 지금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資料들이 사실은 미리 提出이 제대로 되어서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 되면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社長님의 所見을 듣고자 합니다.

분명히 철거방침에 대해서는 公社側으로서는 이미 豫算도 投資를 얼마를 해서 이미 굴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方針

撤回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 執行部 입장에
서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기이 設計 實施基本 또는 實施設計用役을 주었거나
해서 이미 作業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 60億원 정도 되는지
한 20億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部分은 어차피
예산투여가 되어서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든 豫算이 이미 깨진 부분이니까 그것까
지는 그대로 結果를 받아보는 것까지는 좋아도 이후 豫算執
行하는 部分에 대해서는 留保할 用意가 없는가, 그 留保는 조
건이 적어도 충분히 異議提起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
들이 납득이 갈만한 어떤 過程과 節次가 進行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그래도 撤去하고 再施工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이 설 때 가서 차후 進行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堂山鐵橋가 聖水大橋나 다른 데처럼 금방 지금 鐵
橋 運行을 하게 되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중단을 해야 된
다거나 그럴 정도로 심각한 그런 判定을 받은 것도 아닐뿐
만 아니라 지금 24시간 풀가동해서 補修도 하고 問題가 있
는가 없는가 계속 監視監督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사 몇 個月 늦춰가면서 충분한 論議를 하고 點檢을
하고 우리가 늘 주장했던 方針決定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조
금 미흡했던 部分들에 대한 補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납득
할만큼만 된다면 정말로 撤去하고 再施工하는 것이 옳은 方
針決定이었다고 우리도 判斷이 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
드리고 도와드릴 用意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部分에 대해서 어떠한 所見을 갖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地下鐵公社 社長 간략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金永春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현재 세로보에 금이 가고 있는 事項들, 또 앞으로 세로보를 갈아놔도 다시 구조적으로 問題가 있다는 事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報告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報告가 덜 충분했던 그런 事項으로 제가 判斷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金永姬 委員도 말씀을 하셨고 왜 저쪽 산타페 報告書を 강구조학회에 맡아서 거기서 미팅하기로 되어 있는 이전에 왜 決定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이 報告書가 도착하고 난 후에 檢討된 事項이 아닙니다. 4個月 건부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중간평가서 거의 데이터를, 또 우리 강구조학회의 中間報告書を 전부 입수를 해서 양쪽의 事項들을 전부 參考로 해서 檢討를 한 것입니다.

檢討를 해서 거기서 나온 우리가 檢討했던 事項들이 뭐냐 하면 세로보를 補修하는데 동일한 意見을 냈으니까, 그래서 세로보 교체한다는 結論을 우리가 내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報告書を 檢討해 보니까 양쪽을 다 갈아야 된다는 것이 세로보기 때문에 갈자 하는 쪽으로 結論이 나서 갈려고 하는데 方法이 뭐냐, 차를 세워야 된다, 몇 年을 세워야 되느냐, 1年은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난 후에 편안히 다닐 수 있느냐, 못 다닌다, 그러면 撤去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方針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산타페하고 강구조학회를 만나고 할 때

전까지는 우리가 두 쪽에서 오케이 하는 대목이 무엇이나 하면 세로보 같아야 된다는 대목이니까 그것을 중점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아직 저쪽에서 안 되더라도 檢討했는데 이것이 採擇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事後에 보장이 안 되고 1年間 交通中斷을 해야 되니까 이왕에 서울 바에는 市民의 財産과 生命과 또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政策이 결정되니까 그쪽의 미팅하고는 관계가 없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SI技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技術處長이 報告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구조학회하고 아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金永春 委員님.

강구조학회는 소위 바디가 괜찮고 補修하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쪽의 견해는 기본이 시원찮으니까 보수해 봐야 안 된다는 그런 견해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해명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여섯 가지 예로 나누어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종로교 형식이 되어있고, 또 경량설계가 2對 1로 안 되고 1對 1로 되어있고, 도상자갈이 안 되어 있는 등 工法上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한 여섯 가지 종류 때문에 계속해서 금이 가는 것이고, 또 앞으로 補修해 놓아도 또 그렇게 금이 가니까 할 수 없이 撤去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전개를 어제 여섯 가지 項目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구조학회의 論理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하고 論理가 다르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들 판단은 산타페 報告書하고 鋼構造學會 報告書를 다 심층있게 검토해서 서울시 나름대로, 地下鐵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맞다 지금도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쪽이 엉터리다 하면서 그 事業을 추진할 政策 執行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쪽의 결정이 맞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 했다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두쪽 다 이야기가 타당하니까 金委員님께서서는 第3의 機關에 맡겨서 한번 더 檢證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 사항은 저도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나름대로 소신껏 政策을 판단했으니까 저희들 믿어주시고, 우리 일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결론으로 말씀드렸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所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믿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밖에 더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믿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永春 委員; 社長님, 계속해 봤자 평행선인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市民들이 그런 문제 제기했을 때 그렇게 설명하면 市民들이 우리 市議員 뺨따귀 때립니다. 너희들 뺨아줄 때는 가서 똑바로 일하라고 했지, 납득이 안 가는 그 따위 소리나 듣고 와서 우리한테 설득하려고 하느냐, 우선 市議員인 本委員 소스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問題提起하는 市民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1年間 중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

는 問題點 이것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했다, 그 1年이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公社側 立場에서는 이것 저것 어려운 사정 다 감안해서, 물론 따져보니까 세로보 교체하는데 필요한 期間이 1年 걸린다 이런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 1年間 걸린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예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資料를 좀 표시를 해 주시고,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春 委員;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반복해서 質問을 하는데요, 세로보를 교체할 때 드는 費用이 얼마 드는가를 따져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봤지요.

○金永春 委員;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資料를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委員님, 그 資料 낸 決裁報告書에.....

○金永春 委員; 그 費用과 그 다음에 계속 말하자면 維持補修를 하는데 費用까지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壽命이 얼마나 걸린다, 여기 보니까 세로보를 交替하더라도 10年밖에 안 걸린다, 산타페社 報告書 內容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그것 自體가 산타페 報告書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反證하는 바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建設해서 運行해서 지금 10年 되었는데 12年 된 것도 아직까지 지금 34年 앞으로 더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세로보를 交替해도 10年밖에 안 간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全面 交替한다는 자체도 우습고, 여기에 세로보 交替할 때 費用이라든가, 그 다음에 1年間 걸린다는 것

에 대해서 지금 學會쪽에서는 3個月 내지 6個月이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理論家들의 얘기와 실제 현장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적어도 資料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資料를 드리고요.

金永春 委員님, 우리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강구조학회 論理를 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셔야지.....

○委員長 黃炳五; 잠깐만요, 그 중에 하시고 우리 李允中 委員.

○李允中 委員; 李允中 委員입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地下鐵公社 社長께 간단하게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신공단 設計用役 關係 때문에 제가 質疑를 했고, 또 다른 委員도 質疑를 했는데 우리 地下鐵公社 社長께서는 지금 開花山 停車場 荷重 安全問題로 인해서 지난번 建設交通部에서 제재를 받았던, 이 安全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會社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市長으로서 시민 감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再檢討할 用意는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再檢討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經織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法律上으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李允中 委員; 法律上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安全, 安全, 맨날 安全, 安全하지 않습니까?

安全, 安全하는데 荷重을 받아서 이렇게 安全에 問題가 되었던 會社를 다시 再選定했다는 것은 問題가 있다, 그래서 本委員이나 우리 交通委員會 委員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再檢討할 用意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法律上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李允中 委員; 法律上은 아니고,

○委員長 黃炳五; 잠깐만요, 李允中 委員님, 地下鐵公社 社長께서는 檢討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委員長 黃炳五; 檢討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李允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炳五; 金喜甲 委員님.

○金喜甲 委員; 金喜甲 委員입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명쾌하게 答辯을 해 주십시오.

지금 上部構造 全體를 철거하는 費用, 施設 補完하고 또 交替工事해서 撤去해서 設置하는 費用이 전체 632億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면 上部構造를 철거하는 것 말고 세로보만 交替했을 때 費用이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지금 저희들이 檢討한 것은 95億으로 檢討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200億 이

야기하던데요.

○金喜甲 委員; 내부적으로는 95億인데 외부적으로는 한 200億 정도?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金喜甲 委員;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上部構造를 撤去하는 全體 費用, 그러니까 施設을 補完하고 交替工事, 撤去하고 설치하는 費用이 632億, 세로보만 교체했을 때 費用이 한 95億, 그런데 評價가 다르다니까 넉넉 잡아서 200億 정도까지 95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95年 12月 4日 會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社長님이 잘못 答辯하셨기 때문에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95年 12月 4日 會議에 보니까 行政1, 2副市長은 참석을 했는데 政務副市長은 지금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우리 社長님이 세 副市長이 다 참석을 하신 것으로 發言하셨거든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政務副市長님은 參席 안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金喜甲 委員; 정정하십시오. 정식으로 다시 하십시오. 政務副市長 참석 안 하신 것이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金喜甲 委員; 그러면 95年 12月 3일까지는 우리 社長님,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3일까지는 적어도 세로보만 交替하는 것으로 內部方針을 정하셨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우리 公社의 의견으로.

○金喜甲 委員; 公社의 意見으로 그 腹案을 갖고 계셨고?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金喜甲 委員; 그것이 12月 4日 會議에 들어가면서 우리

市長님을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行政1·2副市長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세로보만 交替하는 것이 아니라 上部構造까지 완전히 다 撤去하는 것으로 基本方針이 修正된 것이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檢討指示가 된 것입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니까 修正된 것이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修正된 것이지요.

○金喜甲 委員; 修正되어서 결정된 것이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修正되어서 그것 가지고.....

○金喜甲 委員; 그래서 12月 5日 그것 가지고 發表하신 것 아닙니까, 市民들한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金喜甲 委員; 修正 決定된 것이지요, 12月 4日?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修正方針이 決定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가서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2月 5日 最終決裁 書類를 만든 것 아닙니까?

○金喜甲 委員; 다음날 12月 5日 서울市廳 記者室에서 우리 社長님이 공식적으로 市民들한테 上部構造를 全面 撤去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金喜甲 委員;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12月 3日 그리고 12月 4日 會議때 주되게 上部構造 撤去를 하는 어떤 근본적인 백데이터로서 산타페報告書가 報告가 되었지요? 最終 安全診斷 結果報告書가 報告가 되었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전부 報告가 된 사항이 아니고, 발췌해서 산타페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니까 主要 報告事項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推進日字에도 그 내용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地下鐵公社側의 資料에도 보면. 美 산타페會社の 診斷結果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對策을 강구하고 橋梁安全을 확보한다 이 내용이 主要報告事項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金喜甲 委員; 그러니까 산타페會社の 安全診斷報告書 自體의 결과를 市長님한테 報告書內容을 報告를 드렸을 것 아니에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타페 報告書라는 것이 엄청난 分量입니다. 엄청난 分量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報告를 드립니까? 主要 部分 이런 意見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전부다 報告를 어떻게 드립니까?

○金喜甲 委員; 그러니까 安全報告書에 대한 主要內容을 발췌해서 산타페會社の 主된 내용이 이것, 이것입니다 해서 報告를 드린 것 아닙니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金喜甲 委員;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어제 社長님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세로보만 交替하는 基本方針이 上部構造를 完全撤去하는 方針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美 산타페會社の 안전진단결과보고서가 主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인하셨지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네, 그것은 아닙니다.

○金喜甲 委員; 좋습니다, 부인하시도록 했고요. 그래서 委員長님, 이것은 委員長님한테 제가 議事進行發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堂山鐵橋 上部構造를 全面 撤去한다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세로보만 교체해도 될 것을 全面 交替方式으로 나가게 된 政策決定을 했던 그 자리에 우리 公社 社長님뿐만 아니고 우리 市長님도 報告를 받으셨고, 지금 우리 行政1·2副市長이 참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會에서 당시에 600億이라고 하는 이 工事의 부담을 97년으로 이 세로보만 교체해도 될 부담을 600億이라고 하는 堂山鐵橋 上部構造 全體의 全面撤去의 方針으로 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行政이라는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委員會에서 公社 社長님뿐만 아니고 우리 行政 1, 2副市長님을 상대로 해서 분명하게 왜 그렇게 갑자기 上部構造 全面撤去라고 하는 方針이 정해지게 되었는지 우리 서울市長 趙淳 市長님 같은 경우 本會議 席上에서 하시든지, 별도로 우리가 이것은 委員들끼리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우리 委員會에서 行政1·2副市長을 出席시켰던 관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行政1·2副市長을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 委員會에서 그러한 방침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委員長님이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黃炳五;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停會를 한 5分間 하겠습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委員長님, 제가 停會하기 전에 3分이나 1分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委員長 黃炳五; 끝나고 드릴게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모을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黃炳五; 그러면 그것은 停會席上에서 발언을 드릴게요.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그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委員長 黃炳五; 5分間 停會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11分 會議中止)

(12時 25分 繼續開議)

○委員長 黃炳五; 座席을 整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停會 前에 우리 金喜甲 委員님께서 동의발언하신 서울副市長 出席要求의 件은 우리 交通委員님들의 懇談會 席上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 우리 地下鐵公社 社長の 충분한 說明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長은 왜 거기까지 갔어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장시간 동안 堂山鐵橋 안전성에 대해서 質疑와 應答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석연치 않게 우리 서울市民의 대표인 交通委員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어떠한 說得을 地下鐵公社側에서 못 시킨 점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 金喜甲 委員의 서울特別市 副市長 出席要求의 件은 우리 交通委員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인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委員長님, 신상발언 좀 할 수 있

도록 해 주십시오. 한 1分이라도 좋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委員님들, 신상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우리 委員會에서 金喜甲 委員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檢討하신 후에 일단 유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社長으로서는 대단히 참 송구스럽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常任委員會 열렸을 때 정말로 신명을 다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솔직하게 성의껏 상세하게 報告를 해야 되겠다 하는 책무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 1萬 1,000 地下鐵 公務員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業務를 집행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質疑하실 委員, 金成春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春 委員; 金成春 委員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地下鐵公社 社長님의 答辯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제 堂山鐵橋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님들이 質疑와 答辯을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堂山鐵橋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專門家, 또 市民團體, 이런 분들을 참석을 시켜서 충분히 한 번 더 意見을 수렴하고, 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堂山鐵橋 全面 交替件에 대해서 議會 차원에서 公廳會를 개최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黃炳五; 金成春 委員께서 本 件에 대해 서울시議會 차원에서 公廳會를 개최할 것을 動議하였습니다 그럼 委員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堂山鐵橋 안전성 여부에 대한 質疑答辯은 이것으로 마치고,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動議는 正式議題로 성립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또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永春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永春 委員; 質疑가 아니고 어떻게든 일은 하면 시작에서 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資料要求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로보를 교체할 때는 1년이 걸린다는 算出根據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하고, 세로보 교체할 때 드는 費用 算出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95億원인가 이것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그것을 꼭 보내 주십시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造; 알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朴謙洙입니다.

資料를 要求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아까 社長님께서는 經濟 外的인, 이를테면 撤去에 관련된 부분 말고,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交通局長으로 하여금 같이 상의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交通 전반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부연해서 說明드리면 저희들 만약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다리 철거에 대한 비용뿐 아니고 다리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

대비용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할 것입니다.

○朴謙洙 委員; 그 비용도 資料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炳五; 委員님들 質疑答辯은 사실 마친 것인데, 우리 公廳會 개최 여부에 따른 다른 意見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公廳會 開催 여부에 따른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公廳會 開催는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공청회 開催日字, 場所,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작성하여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登山鐵橋 安全性 여부에 관한 件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地下鐵公社所管主要業務報告

(12時 34分)

○委員長 黃炳五;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地下鐵公社 所管 當面 主要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地下鐵公社 社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姬 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黃炳五; 우리 金永姬 委員님 議事進行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姬 委員; 주요 業務報告에 앞서서 業務중에서 登山鐵橋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틀간 개최가 됐기 때문에 평상

시 業務報告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換乘驛
舍의 混雜對策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상의 業務는 油
印物로 대체할 것을 정식 動議합니다.

○委員長 黃炳五; 그러면 主要 業務報告의 件에 대해서는
油印物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參照)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地下鐵公社 所管 當面 主要業務報告의 件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委員님들과 地下鐵公社社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議事進行을 위하여 잠시 停會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35分 會議中止)

(14時 36分 繼續開講)

○委員長 黃炳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3. 交通放送本部所管主要業務報告

○委員長 黃炳五;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交通放送本部所管
當面 主要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交通放送本部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입니다.

존경하는 黃炳五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1996년도 벌써 4個月 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交通放送本部는 평소 여러 委員님의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배려에 힘입어서 모든 分野의 業務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96年은 廳舍 移轉과 ARS 應答裝置 設置 및 특히 公社發足 준비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로 해서 交通放送 發展에 획기적인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市民을 위한 放送에 交通放送이 주력함은 물론이고, 먼저 말씀드린 廳舍 移轉 業務 및 ARS業務 등에 역점을 두어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報告는 業務報告와 資料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交通委員長님으로 선임되신 黃炳五 委員長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資料에 의해서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業務報告 1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그 동안에 여러 번 委員님들께 報告를 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부터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報告中斷)

.....

○朴謙洙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네, 議事進行發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委員; 朴謙洙 委員입니다.

委員會에서 그 간에 業務報告를 즉 받아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 業務報告를 받는 형태가 지금 보면 여기 主要業務 推進實績과 뒤에 보면 當面 主要懸案 業務報告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순서를 보고말씀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야기 했던 公開發送부터 이렇게 나갔어요. 공개방송부터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交通放送本部에서는 公開發送이 주요한 業務가 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희 交通委員會로서는 ARS 를 비롯한 交通放送 業務가 추진되는 현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方法대로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方法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委員長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交通委員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部分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業務報告 형태를 그런 구태의연한 方法대로 하지 말고 交通委員會 委員들이 가장 현안보고가 뭔가부터 시작을 해서 業務報告가 나가야, 그래야 委員會에서 중심으로 활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우리 交通放送本部長께서는 사실 交通放送本部에서 가장 현안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순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안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交通放送本部를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구요.

우리 委員님들께 委員長으로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은 준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차후부터, 우리 放送本部長 그렇게 할 수 있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차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대로 報告를 받아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계속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繼續)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報告中斷)

.....

○金喜甲 委員; 委員長님, 잠깐만요.

○委員長 黃炳五; 네, 말씀하세요.

○金喜甲 委員; 金喜甲 委員입니다.

本部長님도 기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좀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애당초 저희들이 ARS推進過程에 대해서는 수시로 議會하고 協議하고 報告하기로 약속이 되었었던 事項이고 하니까 별도로 ARS問題에 대해서 報告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래서 各 業體들에 대한 說明會까지도 저희 委員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별도로 本部長님께서 날짜를 잡아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알겠습니다.

○金喜甲 委員; 네, 감사합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委員님들이 제일 좋은 날짜로 잡으

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資料에 의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交通放送本部 廳舍移轉이 저희한테 지금 交通放送公社 추진과 더불어서 제일 當面問題 중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달에 市長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南山 廳舍쪽에서 남산 저쪽을 보시면, 설명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뒤에 廳舍를 저희가 원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좀 큼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같이 쓰고 이런 問題가 나오는데 이것이 建設安全本부로 이 建물이 最終決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난달에 市長님께서 最終決定을 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廳舍移轉計劃을 유인물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繼續)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것으로써 저희 當面 主要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炳五; 交通放送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交通放送本部所管 當面 主要業務報告에 대하여 質疑가 있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交通放送本部長을 상대로 일문일답式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事項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鄭炳仁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炳仁 委員; 鄭炳仁 委員입니다.

제가 市政質問할 때도 나왔던 事項인데 현재 우리 서울시 議員들이 議政活動을 하면서 그때 그때 常任委員會때 도출되는 事項은 못해줄망정 本會議場에서 條例改正이라든가 議政活動에 대해서 우리 서울市民이 내는 税金으로써 운영되는 우리 交通放送이 趙淳 서울市長에 대한 어떤 議員들하고 참여하게 대립되는 事項이라든가 그때그때 리포터를 상주시켜서라도 우리 市民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本部長님의 意見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희도 交通放送이 발족되어서 애초에는 交通放送 許可事項이 交通情報와 氣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저 자신부터 저희 編成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放送局으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주 소망입니다. 放送局的 放送業務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事實報道와 批判機能이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市民들한테 알림으로써 가지는 그런 금지 같은 것이 사실 交通放送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放送을 시작하면서 90年度, 91年度에 걸쳐서 이 問題가 참여하게 그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公報處로부터 상당히 무거운 정도의 질책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저희가 정식으로 公文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公報處에서 온 公文이 市議會議政活動이 서울市政과 交通關聯 分野로서 市民生活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활동자체가 地方議會의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報道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정식으로 公文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放送으로써 알릴 수 있는 그런

權限을 갖고 싶고 그러한 活動을 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 議員님들의 活動狀況을 사실상은 記者들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議員님들이 출연해서 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公報處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議會의 一般市民生活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계속 報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鄭炳仁 委員님께서 本會議에서 質問하신 것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放送 本然의 業務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무모하지만 鄭炳仁 委員님 생각과 저희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포터를 상주시켜서 報道를 중계하는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議會에서 다른 委員會보다 특히 交通委員會에서와 本會議에서 중요한 案件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本部長 개인이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對處하기로 하고, 또 民選自治時代를 맞이해서 放送局으로서 放送다운 活動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炳仁 委員; 그것은 우리 本部長님의 의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本部長님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금 上部機關으로부터 압력을 받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交通放送이 발전하고 우리 市民한테 다가가는 放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실한 意志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交通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交通放送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편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炳仁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姬 委員; 추가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네, 金永姬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永姬 委員; 鄭炳仁 委員님 質問에 追加質問하겠습니다.

서울市議會事務處로부터 서울市議會 활동에 대한 弘報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文書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서울市議會事務處로부터 서울市議會的 弘報에 대한 협조문서나 아니면 협조요청한 일이 있느냐고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있습니다.

○金永姬 委員; 文書로 왔습니까, 口頭로 왔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文書로 왔습니다.

○金永姬 委員; 언제쯤입니까?

○委員長 黃炳五; 金永姬 委員님, 資料로 달라고 하세요. 交通放送本部長은 資料를 빨리 해 주십시오.

○金永姬 委員; 資料로 주십시오.

그 이유는 本委員이 運營委員會에서, 택시기사들이 서울市議會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弘報 次元에서 서울市에서 管掌하는 放送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서울市議會 位置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弘報의 次元으로 서울市議會로부터 交通放送에 협조하는 것과 조금 전에 鄭炳仁 委員님이 質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市議會는 政治라 하더라도 서울市民과 직결되는 모든 生活政治의 일환이기 때문에 市民의 生活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議會活

動에 대해서 交通放送本部에서 그때 그때 放送으로써 할 수 있는 方案이 없느냐, 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義務로서 서울시議會事務處에서 交通放送本部에 協助文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交通放送本部로부터 어떻게 결정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추후 資料로써 提出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그러면 具體的으로 거기에 대한 資料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여기 主要業務報告로 4월 27일 자원봉사자 發隊式을 갖는다고 報告가 되어 있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金永姬 委員; 또 서울시에 弘報要員들이 모든 活動事項에 대해서 아무런 報酬 없이 현재 협조함으로 인해서 교통방송국이 유지된다고 報告하신 것 같은데요, 通信員 말이죠.

지금 人員을 더 확충을 해서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交通放送局에서 오랫동안 自願奉仕를 하신 通信員들에게 정부포상을 요청한 일이 있는지?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이것은 저희가 通信員들에 대해서 發隊式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士氣振作 차원에서 저희 자체 포상을 하고, 開局 紀念日때는 그 사람들을 골라서 年度別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추천한 사람이 國務總理表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總理表彰을 상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永姬 委員; 제가 이것을 왜 質問하냐면 지금 순수한 自願奉仕라는 것이 여러 가지 社會 측면으로 보아서 바람직한 運

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自願奉仕者들은 各界各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交通放送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交通放送다운 放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通信員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國務總理賞도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되는 어떤 포상관계를 좀더 노력해서서 自願奉仕者에 대한 인식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方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委員長이 우리 조금 전에 金永姬 委員님 質疑, 두번째에 대해서 書面으로 답을 하시겠다는데 그 協助要請 中에서 유형별 協助要請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書面으로 자세한 것은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 간략하게 答辯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措置를 하셨는지?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公文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랬더니 公文은 정식으로 왔다고 그래서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公文이 오지 않고 지금 有線으로 協助要請만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사실 충분히 對策같은 것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金永姬 委員; 有線으로 왔다면 서울市議會 누가 언제 어느 분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措置에 대해서 그냥 口頭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正式으로 서울市議會事務處로부터 文書を 받

아서 交通放送員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分析을 하고 結果를 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委員長 黃炳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朴謙洙 委員님 補充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委員; 지금 本部長께서 業務報告하고 무슨 放送廳 舍 移轉計劃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金永姬 委員님 質問에 쉽게 얘기하면 本部長께서 무슨 감을 잘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議會에서 그래도 뭔가 口頭든 文書든 협조요청이 갔으면 放送本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口頭가 됐건 文書가 됐건 간에 최우선적으로 일단 本部長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委員님께서 그렇게 質問을 하셨는데 市의회사무처에서 公文이 온 것을 제가.....

○朴謙洙 委員; 온 것도 모르고 안 온 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물쩍하게 報告를 하실 수가 있어요?

○朴謙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放送本部長께서 報告를 못 들었다는 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本部 體系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市議會에서 오는 것은 반드시 저한테 報告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報告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金永姬 委員님 答辯에 바로 現場에서 문건으로 왔다 아니면 口頭로 왔다 이것을 말씀 못하시고, 지금 이것을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本部長께서 答辯을 하셔도 되는 것이

냐고요. 이것이 答辯 자세냐고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죄송합니다.

○委員長 黃炳五; 交通放送本部長, 지금 議會 차원에서 협조사항이라면 대부분 本部長하고, 有線이라면 직접 通話를 했을 것이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부재 중에는 어떤 實務者하고 通話를 했을 것인데 公文과 有線과 정확한 것은 資料로 해 주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 內容을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협조에 대한 公文도 有線要請도 제가 직접 받은 바가 없습니다.

○朴謙洙 委員; 本部長님, 有線協助要請이건 公文協助要請이건 協助要請했다는 것을 本部長이 직접 받았다 아니면 간접으로 받았다 이것을 말할 계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確因해서 명확한 推進事項과 그것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交通放送本部가 廳舍 移轉計劃이나 ARS나 중요한 事業을 벌이고 있어요. 벌이고 있는데 지금 交通放送本部 內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과연 저희가 放送本部長을 상대로 해서 質疑應答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진짜 저희 交通委員會에서 다른 所管 部署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입장을 밝혔는데 진짜로 애정을 가지고 交通放送本部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이 報告書도 사실은 따질 것이 워낙 많은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交

通放送本部 잘해서 市民한테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서 市議會 開院된 지 8개월 지나서 結果가 뭐냐면 金永姬 委員님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직접 報告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아니, 지금 金永姬 委員님께서 서울市議會事務處 문제에 대해서 公文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여쭙보셨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정을 調査해서 어디에 착오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檢討해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아니 交通放送本部長님, 答辯을 확실히 해주세요.

아까는 文書를 받았다, 確因해 보니까 안 받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確因을 해 보아야 되겠다, 이 答辯이 됩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有線으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內容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러나 우리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제가 충분히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鄭炳仁 委員님 質問에 대한 맥락하고 같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對策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본部長님, 제가 質問한 것은 저희 運營委員會時 業務報告를 받을 때 서울市議會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弘報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대안으로 본委員이 제시해서 서울市議會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推進事項이 交通放送局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確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가운데 文書를 받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有線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현재 本部長님께서서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實務者에서는 일단은 電話 有線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本部長한테 전혀 보고하지 않고 그저 받은 사람이 받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밖에는 저희가 理解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것을 資料를 주겠다, 다음에 정정하겠다, 그것은 答辯하는 분의 태도가 안 좋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사실 서울시議會에서 公文으로 왔는지 제가 內容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報告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우리 本部長, 서울시議會에서 지금까지 交通放送本部에 협조를 1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交通放送本部에 議會 차원에서 왜 협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나는 本部長께서 관심을 議會에 안 가지고 있었다 이런 結論뿐이 안 나와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으로서는 현재 서울시議會事務處에서 정식으로 書類가 왔다고 그러면 제가 틀림없이 決裁를 했을 것이고 제가 사실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金永姬 委員; 本部長님, 文書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것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文書가 왔으면 분명히 本部員이 決裁를 하셔야죠. 안 왔으니

까 지금 答辯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없습니다.

○金永姬 委員; 그러면 아예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꾸 우물 우물 하지 마세요.

○委員長 黃炳五; 다음은 李智文 委員님께서 質疑하시겠습니까.

○李智文 委員; 李智文 委員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먼저 協贊金 收入目標額이 51億 8,200萬원보다 많은 53億 8,400萬원의 계약이 3月 30日 현재 되었고, 지금 추세대로 하면 65億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만큼 市民 稅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交通放送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올해 協贊金의 전반적인 契約現況에 대해서 資料要請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특별공개방송 협찬을 할 때 推進할 수 있는 計劃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計劃內容이 뭔지 같이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타 라디오 방송에도 이런 協資金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우리 交通放送과 비교해서 契約條件에 차이가 있는지, 전체 契約金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ARS가 올해 11月 중에 주요간선도로 20 個所를 目標로 하고 來年 전간선도로로 擴大한다고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 編成比率 中에서 교통기상정보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ARS가 전면적으로 推進된다고 하면 交通情報가 차지하는 編成比率이 축소되는지, 축소된다고 하면 그

축소되는 만큼 어떤 프로그램으로 對處할 것인지, 그런 어떤 ARS 전면추진에 따른 交通放送 編成方針變化計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協贊放送 契約에 대해서는 資料로 提出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商業廣告에 있어서 商業廣告와 협찬이라는 것은 商業廣告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상업화시켜서 廣告物으로써 광고를 하는 것이고, 협찬방송은 어떤 특정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 資料라든지 現金이라든지로 해서 협찬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KBS, MBC 全 放送局이 商業廣告로써 보충하지 못한 部分을 協贊金으로써 대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放送許可 받을 때 商業廣告를 하지 않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찬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收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협찬 단가는 저희가 聽取率이 조금 높은만치 불교방송이나 평화방송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昨年에 불교방송이 56億원 정도의 商業廣告를 했는데 거기서 협찬쪽은 좀 미미했습니다. 사실 협찬 쪽은 放送局에서는 저희 交通放送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放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公社化가 되어서 정식 商業放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정식으로 商業放送廣告를 하는 方向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協贊放送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ARS實施하면서 20個 路線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交通編成比率이 지금 50%인데 ARS는 交通情

報에 대한 자동 응답서비스 차원에서 放送編成廣告는 본질적으로 內容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이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李智文 委員; 本委員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ARS가 출현한다고 하면 일반 우리 市民들 입장에서는 ARS 利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굳이 50%를 차지하는 交通情報가 그만큼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더 縮小를 해서 다른 內容을 대처한다든지 하는 部分에 대해서 전혀, 만약에 ARS가 정착한다는 것은 그만큼 交通情報 거기서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交通放送 50%만큼을 交通情報를 지금처럼 계속 내보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交通放送을 유지하는 기본요소가 交通情報 提供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KBS나 MBC放送局하고 저희가 시사문제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交通放送을 듣는 理由가 交通情報를 듣기 위해서 聽取率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分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RS를 實施하는 것은 전혀 다른 次元의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하고 저희 방송편성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李智文 委員; 그리고 하나 答辯 안 하신 것이 제가 特別 公開放送 協贊할 때 推進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擴大 計劃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週日에 한 번씩 해서 한 600萬원 정도로 公開放送 費用이 策定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도 저희가 公開放送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規模를 조금 크게 하면 費用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강 출연료 및 PA장치, 여러 가지로 해서 600萬원 정도가 1회에 소요되는데 이것이 전부 저희 豫算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豫算으로 잡혀 있으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韓國 通信에서 자기네들이 公開放送을 자기 이름을 해서 같이 해주면 매번 190萬원씩을 더 할 수 있다는 식의 협상안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이것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어린이大公園이라든지 해서 특정 어떤 상황을 놓고 그쪽에서 追加로 협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결정적으로 별도의 收入源이 되어서 협찬금액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는 區廳 순례하고 하면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지만 일반 버스업체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택시업체장이라든가 또는 백화점 이런 데에서는 그쪽에서 協贊料金を 받아서, 이것은 市收入으로 받으면 그만큼 저희한테 전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적극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다음에는 洪性龍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性龍 委員; 洪性龍 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鄭炳仁 委員이 市議員들 의정활동에 대한 弘報關係 이런 것을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交通委員會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것은 交通放送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弘報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그 問題를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시議會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문서로 했던 유선으로 했던 그것을 제대로 本部員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問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學論해서 이것이 누가 그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도 市議會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받은 사람은 뭔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本部長도 이런 問題를 조그마한 問題지만 市議會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團束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要請하고 싶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市議會에서 要請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철저하게 가려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유실된 部分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措置를 취하겠습니다.

○洪性龍 委員; 그리고 廳舍移轉 問題인데 이것이 별관까지 해서 1,800坪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그렇습니다.

○洪性龍 委員; 1,800坪을 새로 新築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費用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지금 그것을 대강 따졌는데 보통 건물 그냥 일반 放送局 規模가 아니고 일반 事務室 規模로 해서 한다고 하면 約 坪當 지금 한 250萬원에서 300萬원 정도면 新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洪性龍 委員; 그러니까 300萬원이면 한 54億원 정도 들어가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렇습니다.

○法性龍 委員; 실지 建物 修理費는 23億 8,000萬원, 절반 정도면 수리할 수 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절반보다도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정도 지금, 같은 서울시 機關인데 그렇게 많이 부를 수 있느냐고 해서 그것을 갖다 저거하고 있는데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50%, 60%선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현실이 지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洪性龍 委員; 修理費用이 들어가는 것을 진단한 것이 어느 會社라고 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修理費用 診斷會社가 지금 서울시 建設安全管理本部입니다.

○洪性龍 委員; 한 군데다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를 얘기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檢討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과는 별도로 해서 몇 個 業體에서 그것을 사실 非公式적으로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法規上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發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傘下機關인 交通放送局 같은 데서는 서울시 傘下 建設安全管理本部로 수리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發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그쪽 事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金額을 내고 하거나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制度的으로 조금 사실 저희가 독자적으로 發注를 할 수 있으면, 서울시 建物에 대한 補修, 管理, 維持, 新築은 서울시 建設本部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制度的인 그런 問題點들이 조금 있습니다.

- 洪性龍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黃炳五; 本部長께서는 廳舍 몇 번가 보셨어요?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10번 이상 가 봤습니다.
- 委員長 黃炳五; 최초로 언제 가 보셨습니까?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趙淳 市長님이 거기 가신 것이 12月 19日입니다.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첫번 許可를 받은 날 같습니다.
- 委員長 黃炳五; 朴謙洙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 朴謙洙 委員; 제가 建設關係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서울시建物 전체를 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豫備費 計上 나오는 것은 交通放送本部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交通放送本部에서 改正해서 豫算 確保를 해서 建設安全管理本部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交通放送本部에서는 이리이러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우리가 얘기한 基本計劃하고 기본 스케치하고 豫算하고 같이 넘겨줍니다.
- 朴謙洙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튜디오 設置하고 소방시설 공사해 주고 이렇게 工事하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改正만 해서 建設安全管理本部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額數까지 구체적으로 算出을 해서 넘기는 것인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 實務者들하고 建設安全管理本部하고 협의를 해서 市長님 決裁를 받아서 그 다음에 建設安全管理本部로 設計하고 전부 그것을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넘길 수 있는 부분과.....

○朴謙洙 委員; 本部長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물론 建設安全管理本部하고 협의야 하겠죠. 주로 業務를 우리 交通放送本部에서 하니까 최종결정은 交通放送本部에서 이리이러한 施設을 해 주십시오 하고 목록만 해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豫算도 이리이러한 施設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 얼마 들어간 豫算 工事を 해 주십시오 하고 넘기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放送裝備 購入은 저희가 하고요.....

○朴謙洙 委員; 放送裝備나 放送施設 設置 이런 것 말고 지금 건물수리 공사비를 묻는 것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건물수리 공사비는 전부 소요산정을 해서 建設本部로.....

○朴謙洙 委員; 소요산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그쪽에다 사전에 요구를 해서.....

○朴謙洙 委員; 本部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와 協議해서 하는 것인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쉽게 쉽게 答辯해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희가 이러한 規模로 해서 이런 工事を 할텐데 여기에 드는 것을 그쪽에다 金額과 더불어 豫算과 같이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建物에서 內裝만 한다든지 스튜디오를 설치.....

○朴謙洙 委員; 本部員님, 지금 本部長님이 業務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李基連 委員; 李基連 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朴謙洙 委員은 建物修理工事費 內譯을 보고 이

것이 지금 어떤 根據로 산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디자인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금 구 建物を 쓰지 않습니까? 舊 建物を 뼈대만 쓰고 가봤더니 내부에 있는 施設은 못 쓰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못 쓰는 모든 資材들을 모두 헐어내고 우리 交通放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위 内部施設의 設計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렇습니다.

○李基連 委員; 그 設計圖面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交通放送建築委員會라든지 施設委員會가 있어서 그 액수에 맞춰서 설비를 하자는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이것은 저희가 建設安全本部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유사형태의 豫算과 거기 實務者 意見과 저희가 별도로 2개의 民間業體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한 金額입니다.

○李基連 委員; 그러니까 그 設計圖面이 나와 있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設計圖面은 設計用役을 시켜야 設計圖面이 나옵니다. 사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강 얼마가 들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額數를 산정한 것입니다.

○李基連 委員; 設計圖面이 나온 상태에서 적어도 우리 交通放送側에서 이만 이만한 공간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스튜디오는 이러 이러한 裝備가 필요하고, 建築公募는 이러 이렇게 섭외를 하고, 機械施設은 뭐뭐 해야겠다 하는 어떤 設計圖面과 裝備의 財源이 나와야죠. 그래서 돈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그냥 잘라서 맞추듯이 工事費 얼마, 이것 얼마, 이것 얼마 쓰면 대강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 놓은 計

算같이 보여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他 2개 業體로부터 견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建設 安全管理本部의 意見도 듣고 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額數입니다.

○朴謙洙 委員; 그 案 寫本 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견적 받은 거요?

○李基連 委員; 견적은 어느 業體에서 받았는지 그것하고 내 부디자인,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 이러한 所要財源을 써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스튜디오를 만들려면 제1스튜디오, 제2스튜디오. 제3스튜디오가 필요하다, 이러한 交通放送側의 案이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죠. 이만한 規模는 가져야 우리가 放送을 하고 이만한 機械가 있어야 되겠고 이만한 電氣容量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分野 分野에 사용되는 用役に 대한 費用, 이것들이 計算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밀한 檢査에 의해서 어떤 數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어서 이러 이러한 정도 가지면 되겠다는 식으로 計算을 했는가 하는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建設本部側의 工事內譯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民間業者側의 工事內譯이 있을텐데 적어도 工事內譯에 대한 工事單價가 나오려면 基本設計가 있어야 工事單價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財源이 있어야 되고 어떤 物品을 써야 되고 어떤 크기의 工事を 해야 된다는 工事內譯을 가지고 다른 業體들이 費用을 算定해야만 工事價格에 대해서 어떤 工事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해 주겠는가 하는 것을 判定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建物改·補修 設計用役을 해야지만 設計圖面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우수리를 뺀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民間業者들에게 받은 것까지 전부 해서 平均數値를 놓고 이렇게 해서 建設本部로 移管하면 거기에서 정식으로 設計用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資材와 구체적인 設計圖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入札을 봐서 建設本部에서 施行하도록 그렇게 하는 制度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냥 자른 것 같은 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이런 것이 확정적으로 計上이 안 된 상태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런데 아까 本部長님 말씀으로는 建設安全本部에서는 이것이 額數가 적다 이렇게 한 거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래서 이대로 해달라니까 建設安全本部에서 나와서 저희 建物을 보고 이 정도 하면 한 30 億원 정도가 들텐데.....

○朴謙洙 委員; 지금 設計圖도 안 나오고 정확한 設計用役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朴謙洙 委員;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것은 사전에 대강 감을 가지고 이것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豫

算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朴謙洙 委員; 그러면 그 豫算을 交通放送本部에서 타다가 建設安全本部로 주는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렇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면 이게 뭐예요?

○委員長 黃炳五; 다음 金喜甲 委員님 質疑해주세요.

○金喜甲 委員; 金喜甲 委員입니다.

本部長님이 答을 안 하셔도 됩니다. 會計處理關係나 이런 실무적인 問題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나오셔서 答辯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本部長님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廳舍를 移轉하는데 있어서 建物修理工事費가 23億원입니다. 그러면 工事費 23億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차피 交通放送本部 計定에 잡혀있는 돈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그렇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 計定을 建設安全本部 計定으로 옮긴다는 거죠? 우리 本部長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옮긴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一般業者들한테 저희 독자적으로 發注를 못하고 서울市에 있는 모든 新·改築 補修工事に 대해서는 建設本部로 移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喜甲 委員; 移管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移管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러니까 얼마만한 額數의 工事を 전부 建設安全管理本部로 移管하면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이 工事を 실시토록 그렇게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金喜甲 委員; 생각해 보십시오. 建設安全本部라는 것이 소

위 얘기하면 施設工事만 하는 그런 專門業體이지 放送의 '放'字도 모르지 않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金喜甲 委員; 스튜디오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꾸며야 되는 것인지 전혀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 아이템은 交通放送本部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아이템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金喜甲 委員; 생각해 보십시오. 스튜디오 하나 꾸미는데 放送에 대한 아이템 없이 집만 잘 짓는다고 그 사람들보고 지으라고 해서 스튜디오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맞습니다.

○金喜甲 委員; 맞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總務部長이 答辯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黃炳五 委員長, 金永姬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永姬; 실무자가 나와서 答辯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總務部長 李圭一; 總務部長 李圭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서울市 內部方針이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法院廳舍를 改築하는 것도 전부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같은 小單位 事業所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建築이라든지 電氣라든지 이런 등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建設安全管理本部에 가면 建築部라는 特殊部分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建築職, 電氣

職 해서 각종 기능들이 모여서 그 業務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각종 營繕業務는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技術도 축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43億원이라는 廳舍移轉費를 댔습니다만 그 중에 23億원의 建物修理費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責任을 지고 算出內譯을 만들어서 建設安全管理本部長과의 사전협의를 의해서 金額을 확정을 해서 市長님 方針을 받아서 넘깁니다.

○金喜甲 委員; 잠깐만요, 算出內譯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總務部長 李圭一; 네.

○金喜甲 委員; 그 내역이 있습니까?

○總務部長 李圭一;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 算出內譯을 지금 委員님들한테 제출을 먼저 해 보세요. 어떤 어떤 根據로 해서 23億원이 들겠다 하는 그 算出內譯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 筭이 나오겠습니다. 그 資料를 먼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보세요.

○總務部長 李圭一; 그렇게 해서 일단 建設 安全管理本部로 이와 같은 형태로 工事を 하겠습니다 하고 市長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建設安全管理本부의 意見を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建設安全管理本부의 전문팀들이 다시 여기에 대한 상세한 實施設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金額이 예를 들어서 23億원을 줬으면 入札過程에서 남으면 다시 저희豫算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면 지금 소위 얘기해서 우리 本部側에서

는 業者를 선정하는 入札過程이나, 또 실제로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내지는 建物이 어떻게 補修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意見開陳이나 이런 것이 없겠네요?

○總務部長 李圭一; 아닙니다. 業者를 선정하는 과정은 公開競爭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金喜甲 委員; 意見を 내본 적은 있습니까?

○總務部長 李圭一; 지금 저희가 意見を 내고 있는 단계고.....

○金喜甲 委員; 아니, 業者選定 過程에서 意見を 내본 적이 있느냐고요. 本部側에서 A라는 業者를 했는데 B라는 業者가 觀望했다고 해서.....

○總務部長 李圭一; 아직까지 저희가 業者選定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낸 案이 參考일 뿐이지 그것이 公開競爭이기 때문에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다만, 業者가 일단 선정이 되어서 工事を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現場監督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交通放送本部의 엔지니어라든지 技術陣이 들어가서 스튜디오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圖面이 있지 않습니까? 그 監督을 철저히 하게 되겠습니다.

○李基連 委員; 그러니까 圖面이 나와 있느냐 하는 얘기죠.

○總務部長 李圭一; 현재 스튜디오에 관한 圖面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金喜甲 委員; 좋습니다 일단 建設監督에 대한 책임은 갖는 다?

○總務部長 李圭一; 그렇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工事を 하는 과정에

서 예컨대 工事が 제대로 안되거나 뭔가 工事に 하자가 있을 때 그런 部分들에 대해서 交通放送本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죠?

○總務部長 李圭一; 같이 지게 되겠습니다.

○金喜甲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本部長님한테 두번째 묻겠습니다.

放送裝備 購入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3億 5,000萬원이 策定되어 있는데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放送裝備는 저희가 放送裝備計劃에 의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 독자적으로.....

○金喜甲 委員; 그것은 독자적으로 하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調達廳에 구매의뢰를 해서 一般購買를 합니다.

○金喜甲 委員; 좋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建物修理工事が 23億 8,000萬원 잡혀있는 그 內譯, 本部側에서 작성한 내용을 저희 委員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별도로 報告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永姬; 추가로 內部規定을 하나씩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무엇에 대한 內部規定요?

○委員長代理 金永姬;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모든 工事を 해야 한다는 內部規定, 根據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永姬; 다음은 李基連 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李基連 委員; 李基連 委員입니다.

아까 設計圖面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設計圖面은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設計圖는 基本構想案은 저희 자체 내에서 토론을 해서 基本圖面을 만들고요, 그 다음 詳細圖面은 發注段階에서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만듭니다.

○李基連 委員; 設計圖面에는 전혀 費用이 안 들어갑니까? 設計圖面을 만드는데 設計費用은 計上이 안 되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지금 여기에서 스튜디오 圖面이 있고 建物 修理工事費에 들어가는 設計인데 그 밑에 보시면 設計費, 監理費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때 이 費用이 들어갑니다.

○李基達 委員; 그러면 各 部門別로 本設計에서 電氣, 通信, 消防施設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李基連 委員; 알겠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면 이 부분만 최종적으로 확인합시다. 設計監理費가 한 1억 6,000만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設計會社에 대한 契約이나 監理會社에 대한 契約은 交通放送本部에서 하는 것이죠? 확인해 보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이것도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法的인 料率에 있습니다. 坪當 1,000분의 몇이라는 料率에 의해서 算出한 金額입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니까 지금 設計 監理費에 대한 것 자체는 本部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다, 책임은 그쪽 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면 設計會社가 어디 會社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저희가 아직 스튜디오 設計에 한해서는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設計部分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추천을 해서 事前 얘기를 들어서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그쪽하고 복수라든지 해서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金喜甲 委員; 아니, 設計圖面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設計圖面이 나온 會社가 어디냐고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본뜻을 제대로 이해를.....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스튜디오 設置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저희 技術部에서 했습니다.

○金喜甲 委員; 자체에서 設計圖面을 작성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그렇습니다. 그 設計圖面을 가지고 建設安全管理本部로 가면 거기에 대한 詳細設計가 나옵니다.

○金喜甲 委員; 우리 本部에 그 設計技術者가 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있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實務者 얘기하고 배치되는 얘기가 우리 本部側에는 그런 나름대로의 專門家的 입장을 가지고 있는 電氣나 通信이나 이런 부분, 또 建築部分에 대한 專門家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 어쩐다 그래서 나는 없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자체 내에서 設計가 되었다니까 앞뒤가.....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아니, 거기는 建物修理工事에 대한 얘기고 스튜디오 設置에 대해서는 사실상 建設安全管理本부의 技術者들이 저희들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設置만

하는 專門業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 技術者들이 합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면 진즉에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납득이 좀 빠르잖아요. 스튜디오에 대한 部分 자체가 理解가 안 가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스튜디오인데, 放送의 핵심인데 建設安全管理本部에 다 넘겨서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永姬; 그러면 李智文 委員님 계속 質疑하시겠습니까.

○李智文 委員; 李智文 委員입니다.

'96春·夏季 프로그램 改編을 3월 4일자로 하셨는데 서울 市政 弘報를 위해서 市長이. 월 1회 定期出演하고 本廳 局長國이 주 1회 巡廻出演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出演한 局長團 出演者 명 단하고 말씀하신 主內容이 뭐였는지, 그리고 출연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빼놓고는 40분.

○李智文 委員; 시간이 언제 있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매주 金曜日마다 하고 있습니다.

○李智文 委員; 특히 지금 交通管理官이 出演한 적이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있습니다.

○李智文 委員; 그 테이프를 우리 委員들에게 하나씩 다음에 配布할 수 있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희가 테이프 保管이 한달이거든요. 要約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 局長團들이 돌아가면서 벌써 1회 이상, 어떤 사람은 2회 이상 出演한 사람도 있고 벌써 몇 바퀴가 돌았습니다.

○李智文 委員; 이것이 한번 出演할 때 1명만 出演하는 것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렇습니다.

○李智文 委員; 그런데 3월 4일부터 했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두달도 안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週日에 한 사람씩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市에 그러니까 두 달치 出演名單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울市의 交通問題라든지 環境問題라든지 특별한 事項이 있을 때는 그 事項을 弘報할 필요가 있을 문제에 擔當한 局長이 順序를 바꿔서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資料를 提出하겠습니다.

○李智文 委員; 그러면 交通管理官 出演한 그 內容은 우리 委員들에게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프로그램 중에 進行者 말고 정기적으로 出演하는 게스트라고 하나 出演者가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進行者 말고.....

○李智文 委員; 말고 어떤 일종의 相談을 해 준다든지 辯護士분이라든지 稅務士라든지 그런 분들이.....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있습니다.

○李智文 委員; 그 프로그램하고 出演者 名單을 다음에 書面으로 提出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 委員長代理 金永姬; 다음은 李始英 委員님 質疑가 있으시겠습니까.
- 李始英 委員; 李始英 委員입니다.
양해가 된다면 本部長님하고 一問一答으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永姬;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 李始英 委員; 本部長님, 지난 서울市 豫算決算委員會에서 ARS 豫算을 세웠죠?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 李始英 委員; 얼마입니까?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19억 7,800입니다.
- 李始英 委員; 이 豫算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지난번 臨時會에서 우리 金喜甲 委員께서 委員長을 代理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소요되는 약 20억원의 豫算 이 所要規模, 진행과정에 대해서 모든 委員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 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게 되면 本部長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렇습니다.
- 李始英 委員; 지금이 몇 월입니까? 4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ARS가 進行過程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아까 소상히 說明을 드렸었는데.....
- 李始英 委員; 했어요?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 李始英 委員;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또 本部長님, 일전에 美國 갔다 오셨죠?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李始英 委員; ARS 때문에 갔다 오셨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主 內容은 放送裝備에 대한 것, 특히 이번에 發注하는 스튜디오 콘솔 및 거기 業體들 展示會가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고, ARS가 LA地域에서 있다고 그래서 日程을 거기서 빼서 하루 그쪽으로 만하임을 갖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施設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미약하고 미비한 實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ARS를 보고서 저희가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러면 ARS를 美國까지 가서 배울 것이 없다면 차후에 本部長님이 지금부터 ARS를 어떻게 事業을 計劃하고 進行을 할 것인지, 사실 저희는 지난번 豫算決算委員會에서도 本委員 이하 豫決委에 들어간 우리 交通委員들이 많은 委員들한테 疑問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ARS를 하기 위한 業者選定이 어느 정도 내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 다시 한 번 說明을 드릴까요?

○李始英 委員; 說明해 보아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러면 아까 報告事項 9페이지에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빼고 推進內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RS가 지금 日本에서는 2분 30초마다 情報가 交換되면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進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간에 걸쳐서 198억엔을 들인 日本의 ARS를 갖다가, 광대한 電算網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餘력도 또 豫算上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기존에 投資한 신신호시스템과 그 다음에 루프시스템 그 다음에 88기능인공시스템에 대한 交通情報를 어떻게 살아있는 情報를 최대한도로 뽑아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ARS에 대한 情報 수집과정에서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各種 資料를 전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수집 차례에 걸쳐서 會議와 討議가 있었습니다.

○李始英 委員; 됐습니다. 여기 業務報告書에 보게 되면 推進內容에 技術規格 작성전문가자문회의 이렇게 해서 2월 13일 會議를 했지요? 그 會議錄을 資料로 全 委員한테 보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이것은 아까 金喜甲 委員님하고 일간 날짜를 잡아서 여기에 대한 書類가 방대하게 많아서 관심 있는 委員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說明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李始英 委員; 金喜甲 委員님 혼자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아니, 아까 안 계실 때.....

○李始英 委員; 왜 그랬냐면 보십시오. 이것이 지난 82회 臨時會 建議案 措置結果 해서 분명히 이 會議錄에 보게 되면 金喜甲 委員은 全體 委員한테 해 달라고 그랬는데 ARS 推進經緯를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金喜甲 委員 개인한테만 했지 어떻게 交通委員會 모든 委員한테 안해요, 분명히 本部員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묻는 것이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것은 저희가 몇 번 要請을 했습니다.

○李始英 委員; 누가 要請을 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제가 要請을 했습니다. 幹事이신

金喜甲 委員님한테 要請을 했는데 지금 지나간 한두 달 동안은 國會議員 選舉期間이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選舉 끝나고 그리고 모이자,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時間이 사실상 서로들 바쁘셔서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간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양해를 하고 또 하나 합시다.

우리 交通放送本部가 機構가 改編되고 또 公社로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計劃이지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그렇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러면 지금 本部長이 改編이 되면 人員補強과 현재 있는 各 局長들 이런 분들 이하 얼마만큼 어떻게 編成할 것인지 그 人員에 대해서 구체적인 本部長의 基本計劃과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로서는 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 案을 資料로.....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제 개인 意見を 말씀드리면 만약 公社가 되어서 그 다음에 改編計劃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公社가 된다고 그러면 行政職은 전부 本廳 어디로 다시 再發수를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로 보아서 本部長 자신도 그 다음에는 社長職制로 變更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李始英 委員; 아니, 本部長이 방금 조금 전에 本人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다고 얘기 안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거기에 대해서는 個人的으로는 제

가 갖고 있습니다만.....

○李始英 委員; 本部長님,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서 速記錄 나중에 보면 알지만 本部長이 基本案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基本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個人的인 本部長으로서는 구상을 안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公社 출범 후의 것까지 資料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아주 쑥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李始英 委員; 本部長님, 大 交通放送本部本部長으로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것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지금 저희로서는 公社가 될 경우에 대강 定款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獨立 法人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TO와 運營狀態는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 個人的으로 구상을 안 갖고 있으면 交通放送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얘기가 되고, 그것을 달라고 그러시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諒解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始英 委員; 本部長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臨時會 會議錄을 제가 왜 갖다 놓은지 압니까? 本部長님이 저하고 얘기한 것을 얼마만큼 약속을 이행하고 또 本部長으로서 하겠다는 것을 했는가 지금 點檢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本部長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委員들이 ARS, 선거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事前에 어려운 豫算을 따 왔으면 그 豫算이 쓰여지는 과

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수시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화를. 本部長님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머리 속에 넣고 있으면 우리 委員들이 어떻게 감지하고 알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臨時會때 時報 얘기했죠? 지금 9시 하고 나면 朝鮮日報 提供입니다, 韓國日韓 提供입니다 이런 提供하는 會社 時報 얘기했지요?

그래서 기타 新聞社에 더 방대하게 넓히겠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협찬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지금 현재 협찬을 해서 정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 데는 文化日報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言論社間에 자기 자존심 問題도 있고 또 이것이 단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時報를 提供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時報 朝鮮日報社 提供입니다 하면 그 댓가로 저희가 한번 멘트를 합니다만 朝鮮日韓에 보면 밑에 交通放送 프로그램을 거기다 掲載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無料로 相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言論社間에 조금 미묘한 問題가 있어서, 저희 기본 생각은 전반적으로 金額으로 換算해서 交通放送에 利益이 되는 방향으로 收入을 잡는 것이 原則인데 그렇게 될 경우 朝鮮日報社 비중과 東亞日報社 비중, 특히 京鄉新聞社 비중과 이것을 갖다가 金額으로 하는데 상당히 곤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文化日報社에서만 협찬요금을 정식으로 받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그냥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올 가을쯤 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全般的으로 폐지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問題에서 結論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李始英 委員; 지난번 82回 臨時會때도 交通放送本部長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本部에 득이 되는 會社를 選定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속기록 볼까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아직도 그런 형태로 無事安逸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本部長을 믿고 따르겠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新聞社하고 言論과 의 관계는 無事安逸로 질책하지 마시고 저희고충을 갖다 조금 理解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始英 委員;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늘 잘 하려고 하는 우리 本部長을 저 개인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11月 22日 速記錄을 볼 때 本部長님이 우리 交通委員會에 있는 많은 委員들한테 많은 약속을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하나 하나 다시 點檢해 보니까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차제부터는 議會에서 速記錄에 남는 그런 事業에 대해서는 필히 메모했다가 지켜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알겠습니다.

(金永姬 幹事, 黃炳五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黃炳五; 朴謙洙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委員; 두세 가지 補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本部長께서 우리 交通放送 視聽率이 평균 몇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운전중 聽取率은 61.9%입니다.

○朴謙洙 委員; 무슨 聽取率이요?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交通放送 聽取率이 61.9%입니다.
- 朴謙洙 委員; 他 放送局에 비해서는 聽取率이 어떻습니까?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운전중 聽取率이 61.9%라는 얘기는 이것이 저희가 그것도 미디어 리서치라는 入札本 會社에서 객관적으로 전혀 개입을 안하고 調査를 했는데 12個 채널 중에서 우리가 61.9%차지했다는 얘기는 다른 데에서 39%가지고 配分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많습니다.
- 朴謙洙 委員; 많은 理由가 왜 많을까요? 이것이 좀 추상적인 質問일지 모르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分析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울市の 交通問題가 다른 나라하고 달리 특히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交通情報를 얻기 위해서 交通放送을 듣는 것이지 交通放送이 프로그 좋아서 듣는다는 것보다도 主原因은 交通情報 때문에 交通放送을 듣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이성미, 김성환이라든지 개그로 해서 조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主問題가 交通情報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朴謙洙 委員; 그러시면 지금 體制가 어떻게 되어 있죠? 3국 2실로 되어 있습니까?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3局 2室 8部 1所로 되어 있습니다.
- 朴謙洙 委員; 3局 2室 8部 1所에 계신 분들의 노력은 짝가고 단순히 서울 市內에 교통이 막혀서 交通情報를 얻기 위해서만 그렇습니까? 視聽率이 그렇게 높습니까?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것은 아니죠, 職員들도 그만큼

열심히 했고 交通聽取率이 꾸준히 향상이 되어 있고 처음에 交通放送局이 設立될 때 과연 交通放送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회의도 많았습니다. 노력 없이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朴謙洙 委員; 알겠습니다. 本部長께서 지금 交通放送 職員들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聽取率이 높다고 했는데 交通放送에 대해서 본인께서 기여하고 계시는 그런 3局 이하 組織에 대해서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씀을, 나는 이 組織이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交通放送本部를 느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30초 동안만 答辯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솔직한 것을 그냥 묻는 것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희 機構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朴謙洙 委員; 視聽率이 61%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職員의 노력과 市民의 交通放送情報 욕구와 맞물려서 視聽率이 높다 이렇게 하셨는데 市民들이 느끼는 交通放送情報 욕구는 市民들이 한 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다른 축은 職員들이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인데 職員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本部長께서 그 組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을 우리 放送本部가 어떻게 하는 것을 30초 동안 말씀해 보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희 組織評價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交通放送局 人員 전체로 보서는 사실상 KBS나 SBS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시다만 단시일 내에 交通放送이 지금 水準까지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職員들의 노력의 結果입니다. 물론 交通情報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길목에 서 있었다 하는 얘기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참 열심히들 일해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

들이 여기 와서 실지로 피부로 맞부딪치는 사람이 PD라든가 아나운서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교적 순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問題는 處遇改善에 대한 問題인데 처음 출발할 당시에 KBS 95% 水準된 것이 저희는 봉급 上向시키는 方法이 없고 해서 지금은 KBS의 80%정도 水準으로 떨어져서 職員들 사기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問題들은 公社 發足과 더불어서 解決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봉급체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도 지금 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 人員이 現人員에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昨年度부터 올까지가 24명이 PD, 아나운서, 技術者들이 다른 데로 스카우트해 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PD와 신문기자가 韓國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고소득자입니다. 그런데 交通放送局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충족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통신, CCTV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交通放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本部長님 말씀 중에 24명이 빠져나갔으면 현재 기존 定員에서 그만큼 부족한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부족합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면 지금 基本的으로 빠져나가게 된 것이 대우를 잘못해서.....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基本的으로 대우문제라고 봅니다. 俸給이......

○朴謙洙 委員; 他 放送會社와 비교해서 대우가 열악해서 빠져나간다 했는데, 그러면 交通放送에 24명 정도 빠져나가면 다른 交通放送을 進行하는데 무슨 問題가 없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래서 지금 各 部署에서 人員 充員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昨年부터 있었고, 해서 市長님한테도 報告드려서 이번 4·5月 중에는 新規採用을 해서 補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朴謙洙 委員; 그 얘기가 우리 報告書에 나왔어요? 新規 4·5月 정도에 採用해야겠다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아직 구두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報告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것이 중요한 業務 아니에요?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交通法本部長 崔仁換; 지금 質問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그것은 저희 計劃으로 지금 구두로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는 다음번 會期에 報告드리려고......

○朴謙洙 委員; 本部長님, 그렇게 구두로 허락을 받았으면 本部長님께서서는 推進하실 것 아니에요? 推進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業務報告할 때는 4·5月 頃에 한다고 하면 그간에 24명이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한 問題인데 새로 充員된다고 하면 充員豫定에서 당연히 이 報告書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다음 번에 報告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市長님한테 구두

로만 말씀드렸고 정식으로 決裁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進行되는 대로 報告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면 24명의 不足分에 대해서 充員하는데 本部長님께서서는 充員에 대한 原則이 서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案을 지금 總務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原則적으로는 公開競爭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PD경우에는 지금 예상이.....

○朴謙洙 委員; 本部長님, 4·5月頃に 24명을 充員하신다면서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그럴 計劃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朴謙洙 委員; 그럴 計劃이면 지금쯤이면 인사원칙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總務部에서 그것을 이제 세우고 있다 그런 것이 말씀이 됩니까? 24명이 빠지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지금 累計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PD를 여기서 9명 뽑을 計劃으로 있는데 뽑는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會社 뽑는 추세로 봐서는 아마 2,000명, 3,000名 支援書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조금 우리가 뽑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체에서 소화할 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朴謙洙 委員; 本部長님, 그래서 充員할 때는 充員에 대한 基本的인 基準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만들어지면 報告드릴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것 최소한도 定員基準에 대해서 本部長께서

그 案이 만들어지는 대로 各 委員들한테 그것을 資料로써, 基準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充員해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資料로써 提出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本部長 뜻은 어떻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렇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면 資料로 提出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本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다 分析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專門家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交通放送이 앞으로 放送 質이 이 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또 公社에 대비한 것도 있고, 市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分명한 充員基準이 서야 하고 그 基準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專門家 중심과 交通放送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화합적인 입장에서 充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本部長님께서 그 점을 參照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시겠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럼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報告 드린 바와 같이 다국적군이라고 볼릴 정도로 別定職, 行政職, 專門職, 技能職, 營業廳에서 온 사람, PD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복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서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專門家 精神의 專門放送으로서 이쪽으로 推進해야겠다고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고, 그 方向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公社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結論을 얻고 그런 쪽으로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人事에 있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都市鐵道公社와 저희 傘下 機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人事때 객관적인 基準 없이 선발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을 소지가 많아

요. 이를테면 낙하산식 人事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청탁에 의해서 人事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基準自體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人員充員計劃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資料를 우리 委員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알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네, 말씀하세요.

○金永姬 委員; 質疑를 준비했는데 朴謙洙 委員이 質疑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放送局이 專門職 중심으로 되면서도 專門職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交通放送의 현실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렇습니다.

○金永姬 委員; 다국적 종합군이라고도 표시했고 저희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年 契約職을 3年 契約職으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3年 契約制로 바뀐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또 하나, 24명이 退職을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集團 退職이나 같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1年間에 그렇습니다.

○金永姬 委員; 그래서 24명이 退職한 月別로 資料를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資料를 드리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24명이 임금과 대우 때문에 나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專門人力이 放送局에서 本人이 더 발전할 수가 없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制約條件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24명이 대우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시다만 그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個人事業을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事業別로 해서 資料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지금 현재 放送局의 構成要員이 다국적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專門職이 放送局을 운영하고 公務員 내지는 專門職 아닌 분들이 현재 모두다 管理職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專門職이 本人들이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意見의 절충이 안 되고, 또 本人들이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는 확률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質問을 드리는 것입니다. 本部長님께서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意思疏通이 잘 된다는 것은 늘 옆에 있으면서도 경우에라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金永姬 委員; 意思疏通이라는 말은 業務를 추진함에 있어서 劃期的으로 프로그램을 바꾼다라든지 專門知識에 대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탈되지 않느냐 하는 質問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專門家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PD,아나운서, 그 다음에 技術職들입니다. 그리고 交通放送의 行政的인 것이 라든지 一般運營에 대해서는 우리 行政職들과 저를 포함한 別定職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編成에 대해서는 編成自律權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技術에 대해서도

사실상 一般業務 사이드에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技術 內部에서 거의 自律的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大義原則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무리가 없는 한은 저도 그대로 다 技術的인 意見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專門家끼리, 또는 專門家와 行政要員과의 意思疏通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專門家 안에서, 예를 들면 여기 PD와 MBC PD 또 KBS PD 또는 우리 送信所長과 KBS所長과의 여러 가지 대우격차 이런 데서 나오는 상대적인 불만감 같은 경우는 퇴직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行政職이 옆에서 고자세를 취하고 보이지 않게 억압을 했다고 해서 그만둔다 하는 그런 事由는 없는 것 같습니다.

○朴謙洙 委員; 제가 보충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朴謙洙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委員; 아까 人事問題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잘 되는 事例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낙하산 人事를 배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랜드라고 하는 衣類會社가 있습니다. 아시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朴謙洙 委員; 그 이랜드가 언더우드, 헌트 이런 同 系列의 會社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人事方法이 독특했습니다. 그 이랜드회사가 年間 賣出額이 1兆원 이상으로 衣類業界로서는 大韓民國에서 혁신적인 會社가 되었는데 그 會社原則이 무슨 原則이냐 하면 社長이 人事權에 대해서 간섭을 않고 各 部署가 部署長 責任下에서 人事權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販賣部 같으면 販賣部長이 이러 이러한 사람이 되

있으면 좋겠다 해서 販賣部長이 결정을 하고, 또 무슨 다른 分野 같으면 그 分野에 대해서 部署 責任員이 人事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適材適所에 人材를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會社가 이랜드회사고, 그 會社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賣出額 1兆원이 넘는 大會社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모든 人事原則이 될 수 있으면 部署가 이룰테면 總務는 總務, 編成은 編成, 技術은 技術, 交通情報는 情報 이런 식으로 그 部署에 맞게 人事가 되는 것이 原則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낙하산 人事를 배제하고 이룰테면 總務면 總務, 技術이면 技術 그런 式으로 人事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基準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黃炳五; 다음은 洪性龍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性龍 委員; 洪性龍 委員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문제인데요, 여기를 보면 交通·氣象情報라든지 交通敎養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運轉者를 위해서 敎養請座를 放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放送에서 運轉者를 위한 敎養請座가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運轉者를 위한 敎養請座가 있습니다.

○洪性龍 委員; 그래서 내가 처음에 本部長을 만났을 때 飲酒運轉을 한다든지 새치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問題點, 그것도 問題지만 예를 들어서 醫藥品을 運轉者가 먹었을 때,

수면제를 먹었다든지 흥분제를 먹었다든지 알레르기계통의 약을 먹었다든지, 항히스타민제죠, 이런 것들을 먹어서 運轉者에게 오는 여러 가지 副作用, 그런 것으로 해서 運轉者에게 問題點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방송프로그램으로 編成을 해서 이것을 運轉者에게 교양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質問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本部貴公은 이것을 특별프로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講座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運轉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交通放送을 많이 듣는 편이 못 돼요. 그래서 그 內容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運轉을 하다 보면 運轉者들의 資質에 問題가 많습시다. 여유가 없이 끼어든다든지 별 짓을 다하거든요. 運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運轉者를 위한 敎養講座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택시운전자들이 어디를 가자고 하면 좋지 않은 데는 안 가려고 하고 별 짓을 다한다고 그러합니다. 이런 問題라든지 그런 運轉者에게 필요한 敎養講座를 放送에서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이것을 質問하는 것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희 放送이 交通情報 제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韓國의 運轉文化 정착을 하는 것이, 지난해에 金永姬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어순화교육부터 藥物服用, 그 다음에 飲酒文化 이러한 것이 제일 基本任務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종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소화시키는 方法이 있습니다. 特輯을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方法이 있고, 또 개그 중에 섞어서 하는 것이 講座보다 클 수도 있고 해서 이 比率이 실질적으로는 全體放送의

거의 基調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飲酒文化에 관한 것은 특집프로로서 저희가 건강상담과 더불어서 醫師 고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얼마큼 飲酒가 자기를 속여서 실수하는가를 계속해서 固定時間業에 放映을 하고 있고요, 각 스포츠마다 交通秩序意識과 더불어서 運轉文化정착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基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들어보셔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洪性龍 委員; 그렇습니까? 醫藥品 服用에 대한 것도 放送이 됩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렇습니다.

○洪性龍 委員; 그것도 여러 가지 藥品도 많이 있는데 그런 問題도 수시로 運轉者에게 敎養을 해서 어떤 藥을 먹으면 조심해야 한다든지, 우리는 대부분 감기약 먹으면 졸음이 온다든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藥의 種類가 많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흥분제를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運轉者에게 障礙가 오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누군가 常識을 가지고 敎養을 해서 運轉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運轉者에게 敎養이 첫째로 필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인상 찌푸려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잘 改編을 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알겠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리면 삼성의료원 김세민 교수라든지 연세대 윤방부 교수가 나와서 藥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

면서 별도로 相談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다음은 金喜甲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喜甲 委員; 金喜甲 委員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本部長님 이하 本部の 幹部 여러분, 늦은 時間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本部長님의 명확한 意志를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交通放送本부를 公社體制化한다는 얘기가 7年 前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것은 저희 放送局의 소망입니다. 저의 意志일 뿐만 아니라 全 職員이 그것을 해야 여러 가지 交通放送이 안고 있는 問題點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하지만 소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公報處에서 추진하고 있는 放送法 改正에 따라서 公社發足 여부가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趙淳 市長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趙淳 市長님께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기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市議員님 여러분께서 빨리 公社化하도록 추진하는 方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放送法이 改正되면 그것에 대해서 推進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喜甲 委員; 그러니까 그 問題에 대해서 우리 本部長님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本部長님의 경력으로 보시나 여러 가지 그 동안 살아오신 인품으로 보시나 충분히 그런 役割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동적으로 放送法 改正만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本部長님 친구

들 중에서 國會議員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그 뜻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改正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겠느냐 움직이지 않으시겠느냐 그 部分만 얘기해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金喜甲 委員; 좋습니다. 더 이상 사족은 필요 없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本部長님이 各界要路를 찾아다니면서 움직이시는 길은 우리 本部長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放送法 이 돼서 公社가 發足되어서 제가 경질이 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金喜甲 委員; 좋습니다.

두번째 質問인데요, 아마 李始英 委員님께서도 아주 핵심적인 質問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公社가 되신 이후에 本部長님 나름대로의 計劃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本部長님께서서는 公社 後에 과연 우리의 組織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복안들과 計劃들이 지금부터 公社를 推進하는데 앞장서서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腹案까지를 計劃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腹案은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그렇습니다.

○金喜甲 委員; 公社가 發足이 되면 비단 組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內部的인 많은 확장도 필요할 것이고 또 組織의 확장에 따라서 정말 손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部分을 물론 우리 本部長님이 저희 議會와 수시로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議會

에서도 公社를 推進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 그리고 公社推進 이후에 앞으로 進行되어질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서울市議會하고 협력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金喜甲 委員; 事前議論을 하시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喜甲 委員; 여러 가지 問題들을 적어도 저희 議會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많은 問題들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員 崔仁換; 네.

○金喜甲 委員; 그리고 자체 內部的으로 公社에 즈음한 나름대로의 計劃案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本部長님 나름대로 별도의 會社內部組織을 통해서 試案들을 만들어주셔도 좋고, 그 案들이 만들어지면 그 內容들을 서울市議會에 반드시 報告를 해 주시고, 저희 議員들이 도와서 해줄 수 있는 部分들의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本部長님이 사전에 그런 部分들을 議會하고 協力한다는 그 약속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金喜甲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委員님들의 중복되는 質問이 겹칩니다만 放送의 報道關係문제나 出演關係 問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公報處라고 하는 그런 制約要件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本部長님이 그것 자체가 施行이 어렵다는 問題도 누차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적어도 이 公報處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制約 때문에 그 部分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本部長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일부 회의적인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의지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도 저희 問題가 우리뿐만 아니라 教育放送하고도 가끔가다 같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 빠질 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放送協會에도 저희가 加入을 못해 있습니다. 또 放送關係 유관단체 몇 군데에서 하는 研修計劃이나 年次計劃이라든지 그리고 또 放送局 代表者 모임 같은 데 저희가 일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意志關係는 의심치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金喜甲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政治的인 事案을 우리 交通放送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뜻만 제외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議會 議員들이 서울市民의 利益, 또 서울市民의 交通問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政治的인 事業이라는 것은 여기가 公務員으로 구성되어 있고 國家機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國家公務員과 國家機關은 政治的으로 中립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政治가 아닌 問題에 대해서 一般生活 問題에서까지 報道라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市議會 活動은 市議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公報處의 견해

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一般國民의 日常生活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 구분 선이 사실 문제고 거기서 제의지가 어떠냐라고 質問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公報處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하고있는 報道機能을, 그렇다고 公報處 案內로만 한다고 그러면 報道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고 推進을 하도록.....

○金喜甲 委員; 아니,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제가 왜 그 部分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나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意見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서울市議會 議長團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市議會 議長이 우리 趙淳市長께서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텐데 예우 차원에서 저희 서울市議會 議長團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배려들이 안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交通委員會가 本部長님하고 協力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 問題뿐만 아니고 솔직히 제가 質疑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3대 市議員들이 여기 交通放送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記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1분 1초라도 出演했던 內容, 멘트했던 內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編成局長, 일어나서 그 資料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3대 市議會 議員들 중에서 交通放送에 나가서 단 1분 1초라도 멘트한 內容이 있는지 없는지, 그 記錄이 몇 년 記錄이 될텐데 파악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報告를 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3代 議員, 한번 직접 얘기해 보세요.

○編成局長 李相鉉; 編成局長입니다.

지금 金喜甲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代 議會때 당시 交通委員會 소속의원이 저희 放送에 한 번 출연한 사실은 있습니다. 內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交通問題를 진단하는 특집 프로그램 하나를 企劃했었는데 여기에 專門家들과 함께 討論者로 한번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金喜甲 委員; 제가 그분의 人的事項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交通放送에 나가서 한 內容까지도. 왜냐, 우리 서울市議會 議長團에서 이미 情報 입수가 되어서 本委員에게 이리이러한 사실들도 있는데 우리 4代 서울市議會 交通委員會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交通放送本部에 제대로, 쉽게 얘기하면 執行部하고의 關係가 원활치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제가 질책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編成局長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외에도 다른 委員님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차례 交通放送을 타면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內容도 某 議員인가는 자기 地域區 懸案事業 때문에 交通 신호등인가 달고 해서 그것도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全市議員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本部長님, 제 얘기를 유념해 들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알겠습니다.

○金喜甲 委員; 정말 原則대로 만약에 그런 전례와 사례가 없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례와 사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4代 市議員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方法들을 모색 안 해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本部하고 원활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명심하겠습니다.

○金喜甲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炳五; 朴謙洙 委員님.

○朴謙洙 委員; 방금 金喜甲 委員께서 하셨던 部分에 대해서 資料로써 그것을 주십시오. 누구누구가 어느 放送에 어떻게 나왔고 그것을 나중에 資料로써 반드시 提出해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資料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우리 全 委員님들한테 資料로 주세요.

金永春 委員님 補充하세요.

○金永春 委員; 補充을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參考로 해야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市政弘報 차원에서 市長 월 1회, 本廳 局長團 주 1회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市政弘報를 하기 위해서 幹部들이 나와서 하고 대담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간간이 어떤 특별한 計劃이 있을 때는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金永春 委員;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입니다. 분명히 公社化도 앞으로 推進할 計劃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배경은 엄연히 이제 완전무결한 地目制 時代예요, 地方自治 時代. 執行부의 말하자면 市長을 民選으로 뽑았을 뿐만 아니라 市議會가 과거의 任命職 時代에

단순한 諮問機關 역할을 하던 그런 때하고는 다르다 이말이
에요.

그렇다면 크게 보면 市政弘報고, 市政을 이끌어가는 데는
수레바퀴의 두 바퀴 중의 하나가 執行部고, 또 다른 한 바퀴
는 議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市政弘報의 차원에서 이렇
게 월 4·5회씩 幹部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대담을 하고 出演
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市 議政活動의 弘報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執行部 차원의 입장과 다소 市民의 입장을 대변
한 議會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交通委員
會 委員들만 나와서 交通問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
기 지금 市政弘報하는데 各 局長들이 돌아가면서 環境問題도
하고 住宅問題도 하고 하듯이 우리 議會도 거기에 대응해
서 各 分科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
을 앞으로 손질을 할 때는 보다 전향적으로 적어도 執行理事
의 局長들이 나와서 얘기한 部分에 대해서 또 關聯 所管委員
會 쪽의 議員들이 같이 나와서 대담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
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公報處 찾고 그
러겠는데 技術的으로 하면 되지, 이것이 무슨 政治的으로 하
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市民生活과 아주 밀접한 問題들을 가
지고 局長이 얘기하는 것을 議員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 문제에 대해서 金喜甲 委員님
도 말씀하셨고 아까 鄭炳仁 委員님도 質問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으로 의지가 부족하다고 탓하지 마시고 제가 가능한 대
로 적극적으로 弘報하고 方法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하여튼
프로그램을 進行시키는데 있어서 저희 交通放送이 조금 가끔

가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좀 커버를 해 주십시오.

○金永春 委員; 물론이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交通放送本部에 대해서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支援을 아끼지 않고 특단의 措置까지 취해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애를 기를 때 연약하고 어리고 철이 없고 그럴 때는 솔직히 아끼고 끌어옵니다만 그것도 限界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어가야 될 나이가 되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스스로 걸어갈 것을 포기한다거나 그럴 때는 가차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問題도 자기 領域의 部分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어떤 部分은 하다 보면 公報處에서 制止가 내려오고 公告가 내려오고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적어도 이렇게 하는 그런 積極性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政治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要求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金永春 委員; 그것은 그러면 한번 앞으로 얼마나 積極的인 意志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말문을 열었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ARS시스템 部分에 대해서는 우리 李始英 委員께서 豫算審議 過程에서부터 出發해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우리 交通放送本部가 施行을 하게 된 制度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간은 뭐냐, 情報를 入手하는 채널, 그렇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그렇습니다.

○金永春 委員; 이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기초

적인 情報를 수집해서 連結이 되어야 비로소 이것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部署의 業務報告를 보는 과정 중에 경찰청이 지금 推進하고 있는 88進路죠? 그쪽의 지능화시스템과 관련된 ARS시스템과 連結시킬 수 있는 情報化 事業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豫算執行을 안해서 불용화를 시켰다, 그래서 交通管理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問題提起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한다, 지금 ARS시스템의 중요한 部分들이 88道路만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한 部分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部分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기는 자동시스템이 導入이 되어서 처음 實施하는 것이고 그쪽의 情報量이 이쪽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 部分의 소통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執行을 안 함으로 해서 거기는 사실상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요. 그러면 다른 部分들도 혹시 그런 部分이 없는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ARS시스템 部分을 警察體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交通放送本部로 뺏기니까 이런 저런 핑계대고 적당히 사보타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質問했습니다만 물론 本部長으로서는 答辯하기가 곤란한 部分이기도 하겠지만 이 部分에 대해서 나름대로 對策,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問題가 發生했을 때는 ARS시스템 導入을 해 놓고 사실상 무용지물로 썩어버리는 結果가 오지 않을까, 극단적으로는 그런 전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한번 생각을 얘기해보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저희가 음성변환장치하고 데이터베

이스 구축하는 것은 노하우가 거의 지금 현재 實施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걱정을 안 합니다. 단지, 영상 검지기하고 그 취약부분을 補強하는 지금 말씀하신 88도로가, 저희는 88도로의 경우에는 設置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情報를 빼서 이쪽으로 連結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部分이 몇 個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청에서 實施를 안한다고 했을 때는 근본소스가 없으면 조금 問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애초부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部分이 있습니다. 88이 지능화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든지, 하여튼 ARS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쪽에다 비콘시스템이라고 이것은 豫算하고는 별도 얘기입니다만 조금 轉用을 해서 하더라도 출발점에서 1km나 2km이 區間만 하면 지나가는 자동차 인식과 도착하는 자동차 소요시간 算出하는 機能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깔아야죠, 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간에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연결점이 잘 접속이 안된다고 하면 第3의 方法을 갖다 하도록 애초에 ARS發注할 때부터 그것을 규격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春 委員; 그런 것에 대한 對備策을 충분히 갖고 우리 委員들이 關心을 가지고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고 導入을 했던 趣旨에 맞게 조금더 뒤에 괜히 그것을 導入을 했구나 하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만일에 그것에서 후회가 된다면 앞으로 交通放送本部가 다른 事業을 推進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金永春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永姬 委員; 4페이지 業務報告에 보시고 市政弘報 및 生活情報放送 強化 해서 나와 있는 部分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市政 소식2,763件 나왔죠? 전체 比率 30 %나왔습니다. 그 2,736件에 대한 內容을 資料로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換; 네,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內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炳五;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므로 議事日程 第3項 交通放送本部長 當面 主要業務報告에 한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質疑를 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業務報告와 함께 委員님들의 質疑에 答辯하여 주신 交通放送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02分 散會)

○出席委員

黃炳五 金喜甲 金永姬 金永春

金亨吉 朴謙洙 李始英 李允中

李基連 鄭炳仁 趙上男 洪性龍

金成春 李智文 李聲九

○專門委員

金泰鎬

○出席公務員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工事2處長 辛正夫

交通放送本部

本部長 崔仁煥

編成局長 李相鉉

總務部長 李圭一